

세종한국어 1-4 교원용 지침서 개발 연구

연구 책임자명
이해영

국립국어원 2013-01-44

발간등록번호
11-1371028-000481-01

세종한국어 1-4

교원용 지침서 개발 연구

연구 책임자명
이 해 영

제 출 문

국립국어원장 귀하

“세종한국어 1-4 교원용 지침서 개발 연구”에 관하여 귀 원과 체결한 연구용역 계약에 의하여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013년 12월 11일

연구 책임자: 이해영(이화여자대학교)

연구 책임자	이해영(이화여자대학교)
공동 연구원	김현진(이화여자대학교), 박기영(서울시립대학교), 이준호(경인교육대학교), 장미라(경희사이버대학교), 조남민(한국기술교육대학교), 이승연(세종대학교), 박나리(서울시립대학교), 이현의(서울대학교)
연구 보조원	홍승아(경희대학교), 김민선(이화여자대학교), 이지혜(이화여자대학교), 조은주(서울대학교), 전우주(이화여자대학교)

연구 협력 기관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차 례

I. 사업 개요

1. 사업 목적	1
2. 사업 내용	1
3. 사업 추진 일정(월별)	2
4. 연구진	3
5. 결과물	3
6. 사업 기대 효과	4
7. 제안 사항	4

II. 지침서 개발을 위한 사전 연구와 적용

1. 「세종한국어 1, 2, 3, 4」 분석	5
2. 언어 교재 지침서 분석	12
3. 세종학당 교원 대상 요구조사	14
4. 세종학당 교원 대상 인터뷰	22

III. 「세종한국어 1, 2, 3, 4」 교원용 지침서 개발

1. 지침서 개발 개요	25
2. 지침서 개발 방안과 개발 내용	25
3. 지침서 예시(예비편, 본 단원, 문화 단원, 종합 연습 문제)	31

I. 사업 개요

1. 사업 목적

- 본 사업은 국립국어원에서 발간한 세종학당용 한국어 교재, 「세종한국어 1, 2, 3, 4」의 지침서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¹⁾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될 지침서를 통하여 「세종한국어 1, 2, 3, 4」의 활용도를 높이고 나아가 세종학당에서의 한국어 교육을 질적으로 향상시키며 교사와 학습자의 수업 만족도를 높이고자 한다.

2. 사업 내용

- 본 사업의 진행은 크게 지침서 개발을 위한 「세종한국어 1, 2, 3, 4」 교재 및 교육과정 분석, 한국어 교재 및 영어 교재 지침서 분석, 현지 세종학당 대상의 요구조사 및 분석, 「세종한국어 1, 2, 3, 4」 지침서 개발의 4단계로 나누어진다.
- 한국어 교재 및 교육과정 분석에서는 「세종한국어 1, 2, 3, 4」 교재 및 국립국어원의 「초급 한국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중급 한국어 1, 2」 등의 교재와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세종학당 모형 등을 그 분석의 대상으로 한다.
- 기존에 개발된 한국어 교재 지침서 및 영어 교재 지침서를 분석하여 장단점을 파악하고 지침서 개발에 반영하였다.
- 현지 세종학당의 요구가 지침서 개발에 적극 반영되어 지침서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현지 세종학당의 기존 요구조사 결과를 참고하고, 지침서

1) 이하 본 과업에서 개발할 ‘세종한국어 1, 2, 3, 4 교원용 지침서’를 약칭 ‘지침서’로 부르기로 함.

개발을 전제로 한 현지 요구조사를 수행하였다.

- 현지 세종학당의 상황을 파악하고 현지 교원을 직접 만나 의견을 듣기 위해 몽골과 우즈베키스탄의 세종학당 세 곳을 방문하여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 「세종한국어 1, 2, 3, 4」 지침서는 단원의 교수·학습 내용의 설명 및 추가 교육 항목 개발, 학습자 성취도 종합 평가 문항 개발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3. 사업 추진 일정(월별)

내용	4	5	6	7	8	9	10	11	12
연구 계획 수립									
착수 보고회									
교재 및 교육과정 분석									
기존의 지침서 분석									
1차 전문가 자문회의									
현지 요구조사									
지침서의 단원 구성 1차									
지침서 1차 원고 작성									
중간 보고회									
지침서 2차 원고 작성									
2차 전문가 자문회의									
최종 점검과 수정									
보고서 작성									
최종 원고 전문가 교열									
결과 보고회									
보고서 제출									

4. 연구진

연구 책임자	이해영(이화여자대학교)
공동 연구원	김현진(이화여자대학교), 박기영(서울시립대학교), 이준호(경인교육대학교), 장미라(경희사이버대학교), 조남민(한국기술교육대학교), 이승연(세종대학교), 박나리(서울시립대학교), 이현의(서울대학교)
연구 보조원	홍승아(경희대학교), 김민선(이화여자대학교), 이지혜(이화여자대학교), 조은주(서울대학교), 전우주(이화여자대학교)

5. 결과물

- 결과물은 최종보고서(세종한국어 1-4 교원용 지침서 개발 연구)와 교원용 지침서(세종한국어 1-4 교원용 지침서)로 구성되며, ‘결과물 제목(발간등록번호)’은 다음과 같다.
 - 세종한국어 1-4 교원용 지침서 개발 연구(11-1371028-000481-01)
 - 세종한국어 1 교원용 지침서(11-1371028-000494-01)
 - 세종한국어 2 교원용 지침서(11-1371028-000495-01)
 - 세종한국어 3 교원용 지침서(11-1371028-000496-01)
 - 세종한국어 4 교원용 지침서(11-1371028-000497-01)
- 제출할 결과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최종보고서 50부, 세종한국어 1-4 교원용 지침서 각 100부
 - 각 향의 보존용 시디(CD) 10장 및 파일

6. 사업 기대 효과

- 현재 세종학당의 교육과정이 지역이나 학당에 따라 서로 상이하다는 현장의 특징을 반영하여, 본 지침서에서는 세종학당의 교재 활용에 있어서 융통성 및 유연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현지의 한국어 교사 및 한국어 학습자의 교육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 지침서 개발을 통하여 「세종한국어 1, 2, 3, 4」를 사용하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사용하는 학당에서도 「세종한국어 1, 2, 3, 4」가 본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이를 통하여 세종학당 한국어 교육의 질적 표준화에 기여한다.
- 「세종한국어 1, 2, 3, 4」의 지침서 개발을 통하여 현지 한국어 교사의 질적 수준 및 전문성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고, 학습자 활동이 강화된 교육 방안을 제공함으로써 학습자에게 보다 체계적인 교육이 가능하게 할 수 있다.

7. 제안 사항

- 현지 세종학당의 사정과 보급 문제를 고려할 때 파일로 배포할 경우 지역에 따라서는 프린터 출력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수집되었다. 그러므로 이를 반영한 인쇄본 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현지 세종학당 중에는 교재의 활용 방법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한 학당도 있어,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교재 및 지침서 활용법에 대한 교원 연수의 필요성이 현지 인터뷰 결과 수집되었다. 세종학당 현지 조사나 관련 업무 차 파견되는 전문가로 하여금 「세종한국어」 교재 및 지침서 활용법 특강을 제공하는 방법도 대안이 될 것이다.

Ⅱ. 지침서 개발을 위한 사전 연구와 적용

1. 「세종한국어 1, 2, 3, 4」 분석

○ 본 연구 사업에서는 교재를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항목을 기준으로 삼았다. 분석의 결과는 각 사항 별로 지침서 개발에 적용되었다.

- 세종학당 현지 교수·학습 상황에 따른 단원별 소요 시간의 적절성
- 교재 이외의 별도 자료나 정보의 필요성
- 어휘 목록, 색인, 콘텐츠 맵에 대한 세종학당 교사 및 학습자의 사용 용이성
- 삽화와 사진의 전형성, 대표성 여부
- 타문화에 대한 편견 유무
- 교재와 관련하여 활용 가능한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연계 가능성
- 교재의 전체 목표 및 단원별 목표의 명시적 제시
- 세종학당의 다양한 교육과정에 유연한 선택적 학습 활동 제시 가능성
- 학습 활동에 대한 메타적인 기술이나 학습 전략에 대한 정보 제시
- 학습자의 한국어 능력, 난이도 및 관심사에 따른 주제 적합성
- 단원별 자기 점검 평가 활동과 학습 목표와의 관련성
- 단원별 발음 교육 항목 유무
- 발음 방법, 발음 연습과 활용, 발음 규칙 등 발음 교육 내용 제공
- 발음 교육 항목의 체계성 및 단원 간 연계
- 자모 교육용 자료의 제공
-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기준에 따른 어휘의 선정 및 난이도
- 새로운 어휘 양의 적절성
- 연습 활동에 제시된 어휘 학습의 실용성
-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내용에 따른 문법 항목의 선정과 배열
- 학습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문법 설명과 예문 제시의 적절성
- 문법의 실제적 사용에 대한 정보 및 활동 제공

- 담화 차원에서의 언어 제시 및 실생활 활용도를 위한 학습 내용 제공
- 실제 담화의 특성(담화표지, 간접 표현, 순서교대, 인접쌍, 선호조직 등)을 반영한 자료 및 의사소통 전략에 대한 정보 제시
- 성취 문화와 행동 문화를 포함한 문화적 특성의 균형적 소개
- 문화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활동 제공
- 상호주의적 관점에서의 양방향 문화 교육 실현 정도
- 다양한 구어 유형의 반영 여부
- 실생활 관련 과제를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과제 구성
- 다양한 구어 유형의 듣기 지문 반영 및 관련 활동
- 다양한 읽기 텍스트 유형 제시
- 읽기 자료에서 새로운 정보 제공
- 학습자의 숙달도와 읽기 자료 전체의 양 및 개별 자료의 길이의 적절성
- 쓰기 활동에서 유도된 쓰기, 통제된 쓰기, 문단 쓰기 활동 제공
- 쓰기 활동의 특성(과정 중심적, 결과 중심적)
- 실생활 쓰기 과제의 포함 여부

1) 교수·학습 시간

- 「세종한국어」의 일러두기에는, 1-3권은 단원 당 4-6시간 수업을 기준으로 집필되었다고 되어 있고 4권은 단원 당 6시간을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되어 있다.
- 이는 문법과 어휘의 양을 고려할 때 적절한 것으로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세종학당의 교육이 주당 6시간 교육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가장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또한 6시간 이상의 수업 시수를 가진 학당에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별도의 연습과 활동이 교사용 지침서에서 제공될 필요성이 있다.
- 문화의 경우, 1, 2권은 3, 4권에 비해 문화 내용이 간략하게 제공되어 있어 동일한 교육 시간을 가지고 있는 학당에서 사용된다는 것을 감안할

때, 1, 2권의 지침서에서 문화 활동을 보충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3, 4권에서도 문화 내용을 누리세종학당과 연계하거나 별도의 단원으로 학습하고자 한다면 역시 교원용 지침서에 보다 충분한 보충자료의 제공이 요구된다.

- 위의 분석 내용을 토대로, 현지 세종학당의 교육 시간을 고려하여 본 단원의 경우 적어도 6시간 수업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연습과 활동을 추가하였다.
- 문화 단원도 1-4권 모두 별도의 단원으로 학습이 가능하도록 문화 단원 주제에 대한 내용과 연습 및 활동을 보충하였다.

2) 교수·학습 활동

- 교재의 충분한 활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학당의 수업 시수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교재가 제시한 학습 활동의 부족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침서에서는 선택적 활동의 제시가 요구된다.
- 교재의 활동 분량이 부족한 점을 고려하여 학습 활동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어휘, 문법, 말하기, 쓰기 등의 영역에 걸쳐 사용 가능한 다양한 활동을 개발하였다. 아울러 학습 시수의 차이로 인해서 제시된 학습 활동을 다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선택적 활동으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알려두기에 안내하였다.
- 가령, 지침서의 알려두기에는 수업 시수가 적은 학당에서는 지침서에 있는 <활동 2, 4>와 <활동 5>를 생략할 수 있다는 안내를 하였다. 더 나아가서 수업 시수가 이보다 더 적은 학당의 경우에는 교재에 있는 ‘연습 2’를 생략할 수 있다는 안내를 하였다.
- 이 밖에도 부분별로 기술된 선택적 활동에 대한 정보를 참고하도록 안내

하였다.

3) 교수·학습 활동에 대한 메타적인 기술이나 학습 전략

- 「세종한국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교원용 지침서에 각 학습 활동에 대한 활동 방식이나 학습 전략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여 교사의 학생 지도와 수업 운영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였다.

4) 발음

- 「세종한국어 1, 2」에서는 발음 부분이 제공되지 않았으며, 「세종한국어 3, 4」에서는 간단하게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발음 규칙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함께 관련된 연습 활동의 제시가 필요하다. 또한 「세종한국어 1」의 예비편에서는 자모 학습 내용이 제공되어 있지만, 발음 방법이나 이와 관련된 교수법이 제시되어 있지는 않다.
- 위와 같은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예비편에서 자모의 발음 교수 방법을 사진과 함께 제시하였고, 발음 연습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학습 활동을 개발하여 제공하였다.
- 또한 1, 2권에 부족했던 발음 학습 항목을 새롭게 추가하고 3, 4권에서는 기존 발음 학습에서 부족했던 발음 규칙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과 예시를 보충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연습 방법을 제시하였다.

5) 어휘

- 「세종한국어」에 제시되고 있는 어휘는 문법과 함께 해당 주제와 관련된 쓰기 혹은 말하기 연습에서 재활용되고 있으나 학당에 따라서는 연습의 양이 부족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어휘의 실제 사용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충분한 연습과 활동이 지침서에 추가될 필요가 있다.

- 위와 같은 분석 결과에 따라 어휘 학습 활동을 위한 연습 및 응용 활동을 안내하였다. 또한 교재에서 제시되는 어휘 중 중요한 필수 어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6) 문법

- 교재의 일러두기에 제시된 바에 따르면, 「세종한국어 1, 2」의 경우 설정된 기본 시수가 「세종한국어 4」에 비해 부족하기 때문에 문법 연습을 위한 활동을 최대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세종한국어 3, 4」의 경우도 ‘어휘와 표현’과 ‘문법’을 연계한 연습 활동이 네 문항 정도로만 제시되어 있어 학당에 따라서는 연습 내용이 부족할 수 있다.
- 위와 같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문법 연습을 위한 활동들을 추가 개발하였으며, 문법 학습 후 확장된 활동이 가능하도록 안내하였다.

7) 담화와 화용

- 의사소통 전략에 대한 정보의 경우, 한국인의 선호적, 비선호적 의사소통 전략의 특성, 간접표현과 공손성, 구어와 문어적 차이, 사회언어학적 요소들에 대한 설명이 보충되면 문법적 오류는 아니지만 화용적 적절성에 위배되는 문장을 생산하지 않도록 지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지침서에서는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였다.

8) 문화

- 「세종한국어」에 제시된 문화 단원은 문화 정보를 전달하고 관련된 활동을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가령, 「세종한국어 1, 2」에 제시된 한국어의 난이도는 「세종한국어 1, 2」를 공부하는 학습자의 숙달도에 비해 높

은 수준으로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문화 단원에 제시된 텍스트를 읽기 활동으로 수업하기에는 어려움이 크다. 그러므로 문화 단원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 안내가 지침서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 분석 결과에 따라, 문화 단원에서는 어휘에 집중하기보다는 문화 정보에 대한 이해와 상호주의적 문화 활동에 집중하도록 안내하였다. 즉, 학습자들 간 토의와 발표 등의 다양한 활동을 추가하고 활동에 필요한 활동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공하였다. 또한 교육 여건에 따라 유연성 있게 수업이 운용될 수 있도록 선택 활동에 대하여 안내하였다.

9) 말하기

- 말하기 과제의 경우, 보통 첫 번째 활동은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 활동은 이야기한 것을 발표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두 번째 활동에서 격식체 사용을 유도함으로써 공식적인 발표에서 사용하는 구어의 유형을 배울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 현재 교재의 말하기 활동은 ‘듣고 말하기’로 연계되어 있다. 학당에 따라서는 구어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하지만 구체적인 말하기 학습 활동 방법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안내가 지침서에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 말하기 과제를 다양화하였으며, 수업 시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부교재를 제공하였다. 가령, 각 단원의 <활동 5>는 교실에서의 말하기 연습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10) 듣기

- 구어 유형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학습자의 실생활에서 일어날 개연성이 높은 일로 듣기가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역시 듣기 수업 방법에 대한 안

내가 없으면 기계적인 수업이 될 수 있으므로 「세종한국어」에 제시된 듣기 내용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되어야 할 것이다.

- 따라서 지침서에서는 교재의 듣기 부분을 단계적으로 학습하여 말하기로 연계할 수 있도록 자세하고 친절한 안내가 요구된다. 이를 지침서 개발에 반영하였다.

11) 읽기

- 읽기는 듣기와 구성 방법에 차이가 있다. 첫 번째 읽기는 대체로 실제 자료를 각색하여 형식 스키마에 대한 노출을 피하고 있고, 따라서 어휘의 난이도도 높은 경우가 있다. 두 번째 읽기는 해당 단원의 목표 어휘와 문법을 사용하여 학습자의 읽기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며 읽기 전략 학습에 주력하고 있다.
- 그러나 일반 교재 사용자의 경우 이에 대한 충분한 숙지나 이해가 부족할 수 있고, 따라서 이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요구된다.
- 이와 같은 분석을 반영하여 지침서에서는 교재에 제시된 읽기의 두 부분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고 학습 목표에 맞는 교실 활동을 위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지침서 개발에 반영하였다.

12) 쓰기

- 교재에서는 쓰기 활동은 ‘읽고 쓰기’ 활동으로 제공되어 있다. 과정 중심의 글쓰기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단순하게 교재에 제시된 쓰기는 숙제로 제시되거나 생략될 가능성도 있다.
- 이에 지침서에서는 쓰기 활동에서 교실에서 단계별 쓰기 과정에 따라 학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순차적 학습 활동 및 교수 방안을 제시하였다.

2. 언어 교재 지침서 분석

○ 한국어 및 외국어 교재의 지침서를 분석한 결과 적용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침서 구성 및 수업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안내

○ 머리말, 일러두기 외에 단원 구성표, 관련 자료 안내(주 교재, 지침서, 평가지, 디지털 교육 자료관, 초급 한국어 교재 등), 교재 구성 안내, 지침서 구성 안내, 토픽이나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관계 소개, 교수 방법에 대한 기본적인 안내가 제시될 경우 효과적인 교재 활용을 도울 수 있다.

2) 융통성 있는 교재 활용

○ 세종학당은 교육과정과 수업 시수가 다양하므로 실제 현장에서는 「세종한국어」를 어떻게 가감하여 적용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출판 또는 발간된 지침서들의 경우, 교재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교육 내용을 추가적으로 포함시킨 경우도 있지만 본 교재의 교육 내용에만 충실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 본 지침서에서는 두 가지 방법을 수용하되, 활동의 추가적 제공을 적극 적용하였다. 가령, 발음 정보와 활동, 문법이나 어휘 활동, 말하기와 쓰기 학습 활동 등을 별도의 학습 활동으로 제시하였고 이를 단원별 부록 또는 해당 부분에 ‘참고’나 ‘확장 활동’의 형태로 교수 관련 정보와 함께 추가하였다.

○ 이밖에 기존의 지침서들에서는 두드러지지 않은 특징이지만, 수업 시수가 다양한 세종학당에서의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본 세종학당 교원용 지침

서에서는 활동들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본 지침서에서는 각 단원 내에서 교수 방법이나 내용 설명 옆에 교수·학습 환경에 따라 교원이 선택 가능한 활동이 무엇인지 표시해 주거나, 또는 단원별로 첫 페이지에 제시되는 수업 개요에서 이를 제시하는 방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3) 소요 시간 안내

- 기존 지침서들은 차시를 구분하여 기술한 경우와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기술한 경우로 나누어진다. 「세종한국어」 교원용 지침서의 경우 추가 구성된 내용이 많고 개별 세종학당의 교육과정에 맞는 유연하고 융통성 있는 교재 활용을 제안하는 데 목표를 두었기 때문에 소요 시간에 대한 안내를 통해서 수업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였다.

4) 어휘, 문법 설명 방식

- 기존의 지침서들의 경우, 문법이나 어휘 부분이 양적으로 전체의 단원 기술 내용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나 그 설명이 형태적 정보에 치우치는 경우가 있다. 의미, 형태, 화용 정보가 골고루 제시되면 좋을 것이다.
- 교육 방법도 ‘도입-제시 및 설명-형태적 연습-유의적 연습’ 단계를 보다 가시적으로 구분해 주어 초보 교사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이다. 이는 지침서 일러두기의 ‘지침서 구성’에서 전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 앞에서 교육한 것과 유사한 문법 사항이 나올 때, 이를 서로 비교하여 주는 방식의 설명이 기존의 지침서에는 부족하다. 문법 설명이 많아도 그 해당 항목에 대한 것에만 집중하며, 유의 문법의 차이점을 분석적으로 보여주지 못한다. 현지 교사들도 유의 문법이 등장할 때, 선행 학습한 문법과 비교해 주는 설명을 원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에 본 지침서는 이를

반영하여 지침서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5) 연습 및 과제 활동에 대한 설명

- 현재 발간 또는 출판된 한국어 및 영어 교재의 지침서들은 대체로 어휘와 문법 부분의 설명에 더 많은 비중을 두는 경향이 있다. 반대로 과제 활동이나 연습 활동의 경우는 단계별 교육 방법과 수행 전략, 상하향식 활동을 위한 교사 발화 등에 대한 정보가 소략하다.

3. 세종학당 교원 대상 요구조사

1) 설문 개요

- 설문에 대한 개요는 다음과 같다.
 - 설문 대상: 세종학당 한국어 교원(15개소 한국어 교원 35명 응답)
 - 설문 기간: 2013.06. ~ 2013.09.
 - 설문 방법: 이메일을 통해 설문 파일 배포 및 수거, 방문 수거
- 응답 기관 및 응답 교원 분포, 기관별 개설 현황 정보는 다음의 <표 1>, <표 2>와 같다.

<표 1> 설문조사 응답 기관과 응답 교원 분포

기관명	응답 교원 수
나훗카 세종학당	1
무타레 세종학당	1
산티아고 세종학당	2
상레오폴두 세종학당	1
시안 세종학당	1
알제 세종학당	1
양카라 세종학당	1
우즈벡 세종학당	7
우한 세종학당	3
이즈밀 세종학당	2
지난 세종학당	2
충칭 세종학당	3
항저우 세종학당	3
후어하오터 세종학당	1
타슈켄트 세종학당	6
계	35

<표 2> 설문 조사 응답 기관의 한국어 수업 개설 현황(수)

	세종학당 명	초급	중급	고급	기타	비고(한국어 교육시간)
1	나훗카	2	2	2	2	주 2회 4시간
2	무타레	3	0	0	0	주 2회 4시간
3	산티아고	5	0	0	0	주 1-2회 3시간
4	상레오폴두	4	0	0	0	주 5회 16시간
5	시안	3	1	0	0	주 2회 4시간
6	알제	2	0	0	0	주 1회 3시간
7	양카라	3	2	0	0	주 4회 15시간
8	우즈벡	7	0	0	0	주 3회 4.5시간
9	우한	5	0	0	0	주 2회 4시간
10	이즈밀	4	2	0	0	주 2회 6시간
11	지난	3	0	0	0	주 2-3회 6-8시간
12	충칭	8	0	0	0	주 1회 4시간
13	항저우	3	0	0	0	주 2회 4시간
14	후어하오터	7	2	0	0	주 5회 10시간
15	타슈켄트	8	3	3	2	주 8회 12시간

2) 설문 내용

○ 설문 응답자 정보 조사

- 한국어 교육 시간
- 한국어 교수 성향 등

○ 「세종한국어」 교재 사용 및 수업 준비 관련

- 교재 사용 현황
- 교재의 효과적 사용을 위해 지침서에 포함되기를 희망하는 영역
- 교재 외에 수업을 위해 참고하는 자료

○ 교원용 지침서에 포함 세부 항목에 대한 필요도 조사

- 교사 발화, 교재 본문, 판서의 제시
- 발음 규칙의 상세한 제시
- 쓰기 지도 방안 제시
- 교수 내용의 기술 방식
- 활동지 부록 제시
- 성취도 평가 문항
- 기존에 개발된 국립국어원 참고 자료 활용

3) 설문 결과

○ 교재 활용 정도

- 「세종한국어 1, 2, 3, 4」 중에서는 2권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41%) 1권을

그 다음으로 많이 사용(34%)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응답자 중 「세종한국어」 사용 교원 수(명)

	1권	2권	3권	4권
선택 인원 (명)	23	24	11	3

○ 단원 당 수업 시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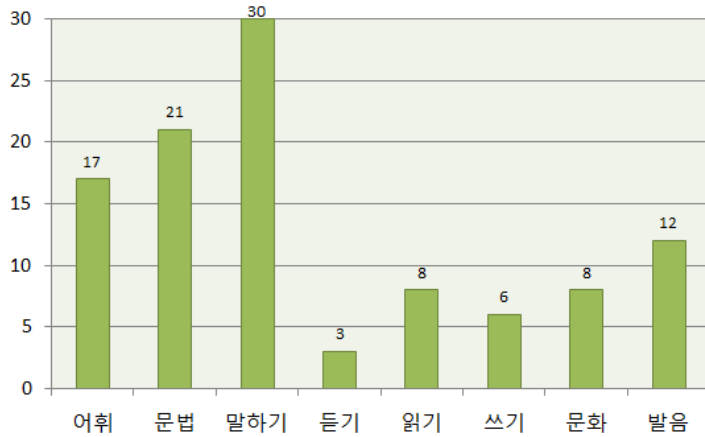
- 「세종한국어」는 한 단원 당 1.5시간이나 4-4.5시간을 소요한다는 답변이 많았고, 한 단원의 이상적인 소요 시간으로는 4-4.5시간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표 4> 교원의 단원 당 수업 시간 운영의 실제와 기대

단원 당 수업 시간	1.5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4.5시간	5시간-5.5시간	6시간	7시간
실제 소요 시간	6명	1명	4명	6명	-	1명	1명
이상적 소요 시간	6명	3명	4명	11명	4명	3명	2명

○ 중점 교수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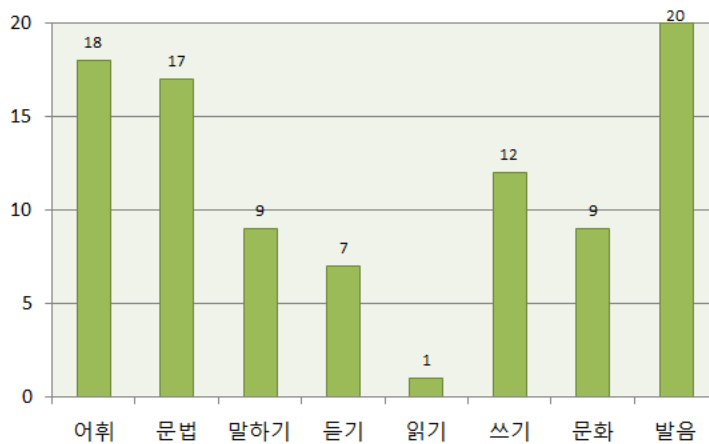
- 설문에 응답한 세종학당 한국어 교원들은 한국어를 가르칠 때 말하기에 가장 중점을 두고 그 다음으로 문법, 어휘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 참조).



<그림 1> 가르칠 때 중점을 두는 부분

○ 가르치기 어려운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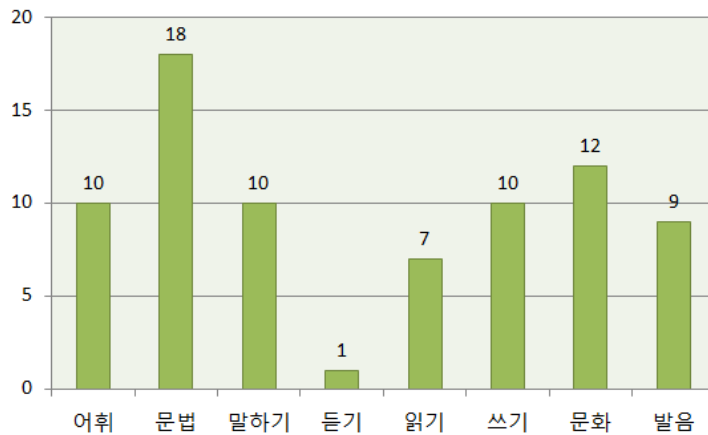
- 가르치기 어려운 영역으로는 발음, 어휘, 문법의 순으로 나타나 세종학당 교원들을 위하여 언어 지식에 대한 정보 제공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 이와 관련하여, 교원들은 학습자 질문에 대해서는 발음에 대한 질문이 가장 대답하기 어렵고 그 다음으로 어휘와 문법이 비슷한 수준으로 답변하기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2> 학습자의 질문 중 가장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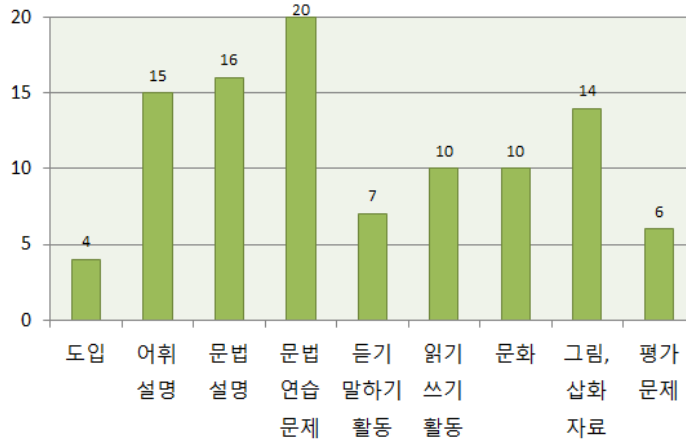
○ 보충이 요구된 학습 영역

- 역시 중점을 두어 가르치고자 하나 가르치기 어려웠던 영역에 대한 보충 요구가 높았다. 세종학당 한국어 교원들은 지침서를 통해 교재의 보충이 필요한 부분으로 문법을 가장 많이 선택했으며 문화, 어휘, 말하기, 쓰기, 발음 등에 대해서도 높은 요구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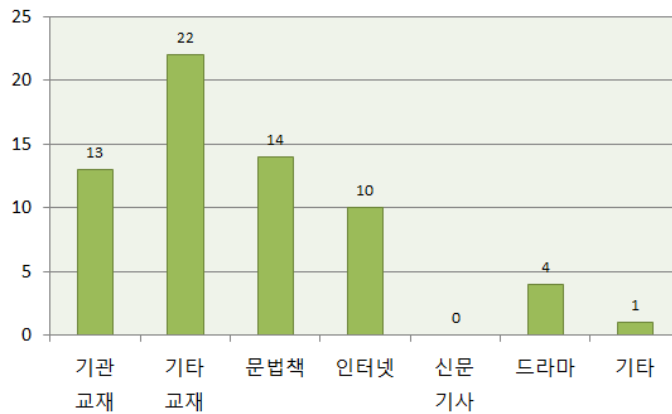
<그림 3> 지침서를 통해 보충되었으면 하는 영역

- 「세종한국어」를 활용하면서 교원들은 문법 설명이나 연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참고 자료 사용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고 응답하였다. 다음의 <그림 4>는 교원들이 참고 자료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영역 3개를 선택하게 하여 얻은 결과이다.



<그림 4> 참고자료의 사용이 필요한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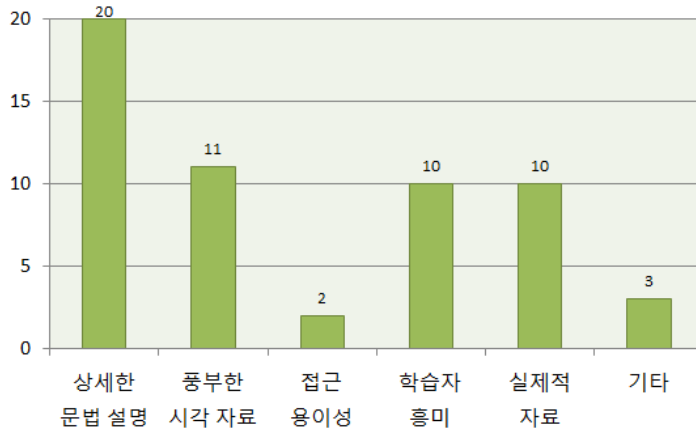
- 교원들이 「세종한국어」로 수업을 할 때 주로 참고한 자료는 기존에 개발된 여러 종류의 한국어 교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세종학당 교원들은 자세한 문화 내용, 상세한 발음 정보, 연계 자료의 정보 등 수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추가 정보의 제공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그림 5> 주로 참고하는 자료

- 응답한 교원들은 「세종한국어」 이외의 자료를 참고하는 이유로 상세한 문법 설명의 필요성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며, 풍부한 시각 자료나 실제적

자료, 이를 통한 학습자 흥미 유발 또한 참고 자료 선택의 중요한 이유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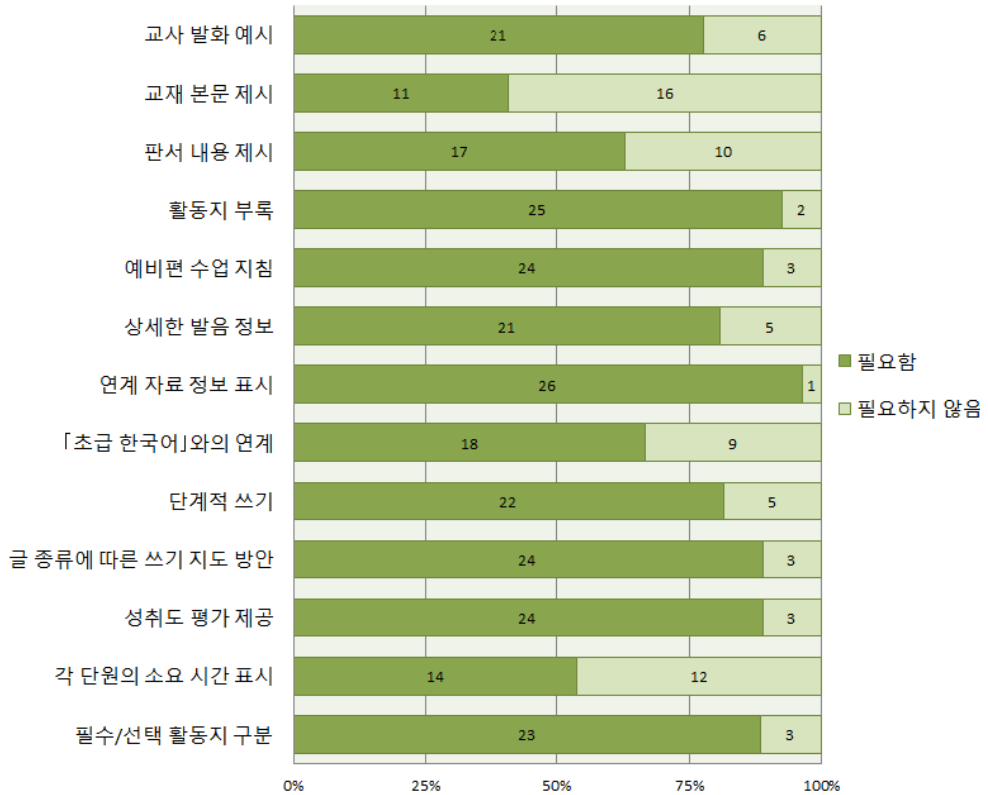
<그림 6> 참고 이유

○ 보충이 요구된 교수 방법 및 교실 기법

- 수업 방법에 관련하여 예비편 수업에 대한 지침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고, 교사 발화 예시, 문법 설명과 예시, 판서 내용 제시 등의 구체적 교실 기법에 대한 안내를 원하는 의견 또한 많았다. 이는 교원용 지침서에 반영하였다.
- 배운 문법을 활용한 의사소통 활동, 단원 내용과 관련된 게임이나 다양한 유형의 연습 문제 등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다수 나타났다.
- 교실 쓰기 영역에 대해서는 단계적 쓰기 방법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쓰기 교육에 대한 높은 요구를 보이기도 했다.
- 또한 교실 활동에 대한 안내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교실에서 활동하기 위해 필요한 부교재 등을 제공해 주고, 활동들에 대해서 필수와 선택을 구분해 주기를 원하는 의견이 많았다. 따라서 본 교원용 지침서에서는 이를 반영하였다.
- 복습과 중간 점검을 위하여 소단원별 성취도 평가 제공에 대한 요구가 높

게 나타났다. 따라서 본 지침서 개발에서는 이에 대한 추가적 요구를 수용하여, 제안서 당시에 계획하였던 중간, 기말 평가 대신 활용도가 높은 종합 연습 문제 형식의 평가 문항을 3-4 단원 별로 제공하였다.

- 교수 방법 관련한 이러한 교원들의 요구 내용은 아래와 같다.



<그림 7> 교수 방법 관련 요구조사

4. 세종학당 교원 대상 인터뷰

1) 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 참석 교원 인터뷰

- 2013년 7월에 개최된 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에 참석한 세종학당 교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각 세종학당 별로 조사된 내용을 제시하

면 다음과 같다.

- 퀘존 세종학당의 경우 다양한 연습 활동의 제공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 루앙프라방 세종학당의 경우는 단순한 생활어 학습에서 벗어나 각 분야 (공업, 농업, 관광업 등)에 맞는 실질적인 내용의 제공을 요청하였다.
- 몽골 울란바토르 1 세종학당에서는 「세종한국어」의 내용이 다양한 연령의 직장인, 대학생 학습자들로 구성된 세종학당 학생들의 학습 목적을 고려했을 때 양적(시수의 부적합성, 문항 불충분성), 질적(다양한 문항의 부재, 기능별 문항의 불충분성)으로 부족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문화 정보의 추가, 보충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교사가 학습자의 문제 해결 능력을 점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습 문제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 충칭 세종학당에서는 「세종한국어」에 불규칙용언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여 문법적 설명이 필요함을 언급하였으며, 전반적인 활용표 제공을 요구하였다. 이를 수용하여 본 교원용 지침서에서는 1, 2권에 한하여 용언 활용표를 부록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충칭 세종학당에서는 활용 가능한 연습 문제와 기타 본문 관련 표현, 주제와 관련된 회화에서 사용하는 대화 등에 대한 제공의 필요성을 언급하였고, 문법, 어휘의 부족함을 보완하는 학습이 필요하므로 관련 내용을 제공해 달라는 의견을 냈다.

2) 현지 세종학당 방문 인터뷰

- 몽골 울란바토르 1 세종학당 및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세종학당, 사마르칸트 세종학당을 현지 방문하여 인터뷰한 내용은 다음과 같았으며 요구조사 결과인 아래 요청 내용은 지침서 개발에 적극 적용하였다.
- 문법 항목의 사용 방법, 자연스러운 문법 사용에 대한 안내, 문법의 비교, 해당 문법 항목의 출연 단원을 알려주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각 문법 항목 간의 연계성을 제시함으로써 지나치게 선행하여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안내하면 좋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 관련 문법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라는 의견과 문법 연습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이에 대한 판서 방법을 제시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 「세종한국어」에 제시된 어휘의 확장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어휘 수준이 높다는 의견이 모두 나왔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단원의 주제와 확장 가능성을 감안하여 확장이 필요한 어휘의 경우 용례와 함께 제공하였다.
- 발음 교수에 대한 어려움을 다수 호소하였다.
- 지침서 부록에 불규칙 용언 표를 넣어달라는 요청에 따라 지침서 마지막에 수록하였다.
- 지침서를 책으로 발간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으나 적용이 어려운 부분이므로 제안 사항으로 전달하였다.

Ⅲ. 『세종한국어 1, 2, 3, 4』 교원용 지침서 개발

1. 지침서 개발 개요

- 본 지침서는 단원 별 교수·학습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제공함은 물론, 어휘 및 문법 연습 활동을 추가적으로 개발하였으며, 성취도 점검을 위한 종합 평가 문항을 함께 수록하였다. 이로써 지침서 한 권으로 교실 내 교수·학습 활동에서 자가 학습, 성취도 평가에 이르는 일련의 교육 활동이 완결되도록 하였다.
- 어휘, 문법, 듣고 말하기, 읽고 쓰기 활동과 문화 단원 등의 한국어 교육 내용 및 방법을 지침서 한 권에 총체적으로 기술하여 교사가 직접 개발해야 하는 수업 보조 자료나 기타 교재에서 발췌해야 하는 부수 자료에 대한 의존도를 최대한으로 낮췄다. 이를 위해 수업용 부교재로 활용할 수 있는 활동을 각 단원의 마지막에 <활동 1> - <활동 5>로 삽입하였다.
- 다양한 수업 시수를 가지는 학당의 특성에 따라 『세종한국어』의 유연한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각 단원은 세부적으로 하위 단계별로 나누어 구성되었고, 각 단계에서는 활동을 통하여 중점적으로 다루는 영역을 충분히 연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지침서 개발 방안과 개발 내용

- 『세종한국어』는 본 단원, 문화 단원, 그리고 1권의 경우 예비편과 복습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일러두기의 특징과 함께 예비편, 본 단원, 문화 단원, 종합 연습 문제의 개발 내용을 설명하고 예시하였다.

1) 일러두기

- 위 집필 원리에서 단원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일러두기

에 제시하였다.

- 일러두기에서는 「세종한국어」 교원용 지침서 각권의 공통적인 구성과 특징 및 활용 방안을 제시하여 본 단원에서 불필요한 반복 기술을 방지하고 교원용 지침서 사용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종합하였다.
- 일러두기에서 제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세종한국어」를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단원 구성에 따라 상세한 교육 내용을 제시하고 있음을 안내
 - 학당별 교육과정에 따라 선택 가능한 활동에 대한 정보 제공
 - 지침서에서 개발, 제시되는 어휘와 표현, 문법, 발음 교육을 위한 언어 정보 및 수업 활동에 대한 소개
 - 듣고 말하기 및 읽고 쓰기 보충 활동의 내용 설명
 - 새롭게 개발한 <활동1>-<활동 5>에 대한 안내 및 선택적 활용에 대한 지침 제공
 - 학습 성취도를 점검할 수 있는 ‘종합 연습 문제’에 대한 안내
 - 문화 단원을 위한 교육 내용과 교육 방법 안내
 - 참고 자료(누리세종학당,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초급한국어」)의 활용에 대한 안내

2) 지침서의 본 단원

- 「세종한국어」 교원용 지침서 본 단원에서는 「세종한국어」의 교실 사용에 필요한 내용을 개발하고,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 설명과 같이 누리세종학당의 학습 자료, 국어원에서 개발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초급한국어」와 연계하였다.
 - 문법 설명 및 연습 활동 참고를 위하여 정보를 제공하였다. 가령, 「세종한국어 2」 6과에서는 ‘-아/어 주다’ 학습을 위하여, 「외국인을 위한 한국

어 문법 2] 559쪽, 「초급한국어 듣기」 10과, 「초급한국어 말하기」 12과, 「초급한국어 읽기」 18과, 「초급한국어 쓰기」 20과를 참고'하라는 지침을 제공하였다.

- 문화 단원 학습에 누리세종학당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가령, 「세종한국어 3」 문화 4단원에서는 관련 영상인 ‘《세종한국문화 1》의 10 단원(한국에는 사계절이 있어요.)’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 「세종한국어 1, 2」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발음 항목을 추가적으로 개발하고, 「세종한국어 3, 4」에서는 발음 교육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이를 통하여 세종학당 교원들에게 부족하다고 조사되었던 발음 관련 지식을 「세종한국어 1, 2, 3, 4」 전권에 걸쳐 발음 교육에 필요한 방법과 함께 상세히 안내하였다.
- 「세종한국어」에 제시된 문법 설명에 더하여, 이들의 화용적 특성에 대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어법과 사회언어학적 상황에 맞는 사용을 익힐 수 있도록 하였다.(다음의 예시 참조)
 - ‘-아/어 줄래요’가 교재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떤 일을 요청할 때 사용된다고 되어 있지만 지침서에서는 자신보다 나이가 많거나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는 요청의 표현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 ‘-는/(은)ㄴ 것 같다’의 경우도 교재에는 불확실한 판단임을 나타낸다고만 기술되어 있지만, 지침서에서는 이에 더하여 공손성(politeness)을 나타낸다는 화용적 정보를 제공하였다.
- 세종학당 교원이 「세종한국어」에 나와 있는 ‘대화’와 ‘듣고 말하기’, ‘읽고 쓰기’의 다양한 활동을 간략하게 축소하여 진행함으로써 필수 학습 내용을 누락하고 시간 활용에 문제를 겪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하였다. 즉, 학습 내용을 적절히 배분하고 학습자에게 더 풍부한 내용과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는 방법을 구체적인 부교재와 함께 제시하였다. 부교재는 복사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부록으로 제시하였다.

- 모든 학습 영역에는 개요를 넣어 세종학당 교원이 단원과 활동에 대한 이해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세종학당 교원이 수업에서 사용 가능한 대화나 질문을 제공하여 교수 경험이 부족한 현지 교원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 현지 교원들이 실제로 활용 가능한 문법 판서를 제공하여 더 체계적이고 시각적인 효과가 있는 표준화된 교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위의 지침서 개발 방안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단원 내용을 구성하였다.

<표 5> 교원용 지침서 3권의 본 단원 내용 구성 개요

구분		내용
수업 개요		○ 수업 개요를 표로 제시하여 각 파트별 내용과 주요 활동, 교사의 준비물과 예상 소요시간을 제시
도입		○ ‘개요’를 통해 해당 단원의 학습 내용 제시 ○ 교사가 수업에서 활용 가능한 ‘교사 발화’ 또는 ‘교사와 학생 간 대화’ 제시
대화 1 대화 2	대화	○ 대화 1, 2의 도입과 CD를 사용한 수업 진행 방법 제시
	어휘와 표현	○ 수업 방법과 순차적 활동을 제시 ○ 교재 기본 어휘에서 확장 가능한 어휘 제시
	문법	○ 문법에 대한 설명을 제공 ○ 이전 단원에 제시된 문법과 비교가 필요한 경우나 목표 문법의 의미를 제한해야 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 참고 내용 제공 ○ 문법 판서 예시
	연습 1 연습 2	○ 연습 1 학습 전 부록의 <활동 1>을 사용한 단순 연습 제공 ○ 연습 1, 2의 활동 방법 제시 ○ <활동 1>의 정답 제시
	마무리	○ 부록의 <활동 2, 4>를 사용한 대화 1, 2 마무리
듣고 말하기	듣기	○ 듣기 활동 방법과 순서 제시

	말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하기 활동 방법과 순서 제시 ○ <활동 5>를 활용한 학생들의 말하기 활동 방법 제시
	발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종한국어 1~4에 새롭게 추가 ○ <참고>에서 국립국어원의 발음 규정 제시
읽고 쓰기	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재 읽기 활동 방법과 순서 제시
	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쓰기 활동 방법과 순서 제시 ○ 쓰기 활동 마무리 방법 제시
마무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자들의 성취도 점검과 단원 마무리 방법 제시
추가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화 1’의 어휘, 문법을 활용한 문장 만들기 연습 • ‘대화 1’의 어휘, 문법을 활용한 대화 연습 ○ <활동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툰과 중요 어휘를 보고 대화 구성 활동 ○ <활동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화 2’의 어휘, 문법을 활용한 문장 만들기 연습 • ‘대화 2’의 어휘, 문법을 활용한 대화 연습 ○ <활동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툰과 중요 어휘를 보고 대화 구성 활동 ○ <활동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하기’ 활동 내용을 토대로 한 발표 활동

3) 지침서의 문화 단원

- 「세종한국어 1, 2, 3, 4」에 제시된 풍부한 문화 교육 내용을 효율적으로 교수할 수 있도록 문화 단원에 대한 교육 활동의 방법과 사용 가능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학습자의 문화 학습 욕구와 교사의 필요를 모두 충족시켰다.
- 지침서에서는 세종학당 교원이 수업 시간에 참고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인터넷 사이트 주소를 추가로 제공하고,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시청각 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누리세종학당의 <세종한국문화>에 대한 정보와 활용 방법을 제시하였다.

- 위의 개발 방안에 따라 작성된 교원용 지침서 3권의 문화 단원의 구성 개요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6> 교원용 지침서 3권의 문화 단원 내용 구성 개요

구분		내용
수업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 목표 및 단원 내용 설명 • 누리세종학당 <세종한국문화>와 관련된 단원의 경우 해당 단원 연계
문화 학습 준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재의 사진과 질문을 활용한 문화에 대한 관심 유도 • 단원의 주제 및 학습 목표 제시
	어휘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가 미리 제시한 예습용 어휘와 표현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서 토의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의한 어휘의 내용에 대해 발표 • 새로운 어휘 학습 및 확인
문화 학습 활동	문화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문화에 대해 설명
	비교 문화 토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과 자국의 문화 간 공통점과 차이점을 제공된 부록의 문화 <활동>을 사용하여 활동
	구상 개요 작성, 발표 개요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감 선정, 발표 주제 선정 • 글의 구조 조직, 발표문의 구조 구상 • 필요한 내용을 정리
문화 학습 마무리	쓰기, 발표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상 개요를 바탕으로 글을 완성 • 완성된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발표
	마무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문에 답하기 • 학습한 내용 정리

4) 종합 연습 문제

- 학습자의 학습 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내용에 따라 3-4단원마다 종합 연습 문제를 제공하였다.

- 종합 연습 문제는 어휘, 문법, 간략한 쓰기, 읽기를 평가하는 문항으로 구성되며, 50분 동안 15문항을 풀도록 구성하였다.
- 문항 구성은 다음과 같다. 1-8번에 해당되는 대문항들은 어휘 혹은 문법 문제이고, 9-11번 대문항은 쓰기 문제로, 배운 문법을 활용하여 쓰도록 구성하였다. 마지막 12-15번에 해당되는 두 개의 대문항은 읽기 문제로, 교재에 나온 텍스트를 변형한 텍스트 1개, 교재의 주제에 맞춰 새로 작성한 텍스트 1개로 구성하였다.

3. 지침서 예시(예비편, 본 단원, 문화 단원, 종합 연습 문제)

- 위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집필된 「세종한국어 1, 2, 3, 4」 교원용 지침서는 예비편, 본 단원, 문화 단원, 종합 연습 문제로 구성되는데, 각 유형별로 1개의 단원을 축소 복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세종한국어 1」 예비편

예비편

학습 목표

한국어와 한글의 특징을 이해하고 한글 자모와 한글의 음절 구조를 익힐 수 있다.

단원 내용

1. 한국어와 한글
 - 한국어의 특징
 - 한글의 제자 원리와 특징
2. 한글 자모
 - 한글 자모와 그 음가
 - 한국어의 음절 구조
3. 유용한 표현
 - 기본적인 인사말
 - 교실에서 사용하는 유용한 표현

수업 개요

구분	내용	교육 활동	준비물	소요 시간
한국어와 한글	한국어	• 한국어의 특징 이해하기		30분
	한글	• 한글의 특징 이해하기 • 한글의 제자 원리 이해하기		
한글 자모 1) 자모와 음절 1	모음 1	• 모음 10개의 발음 학습하기 • 모음 글자 읽고 쓰는 법 연습하기	• 모음 카드 • 시디(CD) • 활동 1	80분
	자음 1	• 자음 14개의 발음 학습하기 • 자음 글자 읽고 쓰는 법 연습하기	• 자음 카드 • 시디(CD) • 활동 2	100분
	음절 1	• 음절의 구성 원리 제시하기 • 받침 없는 음절 읽고 쓰는 법 연습하기	• 시디(CD) • 단어 카드 • 활동 3, 4, 5, 6, 7	150분
한글 자모 2) 자모와 음절 2	모음 2	• 이중모음 11개의 발음 학습하기 • 모음 글자 읽고 쓰는 법 연습하기	• 모음 카드 • 시디(CD) • 활동 8	80분
	자음 2	• 된소리(경음) 5개의 발음 학습하기 • 자음 글자 읽고 쓰는 법 연습하기	• 자음 카드 • 시디(CD) • 활동 9	60분
	음절 2	• 받침 없는 음절 읽고 쓰는 법 연습하기	• 시디(CD) • 단어 카드 • 활동 10, 11	80분

구분	내용	교육 활동	준비물	소요 시간
한글 자모 3) 받침과 음절	받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받침의 개념 이해하기 • 받침의 발음 학습하기 • 받침 있는 음절 읽고 쓰는 법 연습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모 카드 • 시디(CD) • 단어 카드 • 활동 12, 13 	100분
	음절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받침의 발음 듣고 구별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어 카드 • 시디(CD) 	30분
한글 자모 4) 종합 연습	종합 연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글 자모 및 음절 복습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디(CD) 	50분
유용한 표현	인사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적인 인사말 학습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디(CD) 	30분
	교실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실에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 학습하기 		
예비편 마무리	내용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 내용 정리 및 질문하기 		10분

1. 한국어와 한글

◎ **개요:** 한글 자모 학습에 앞서 한국어와 한글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하도록 한다.

1. 학생들에게 한국어와 한글에 대해 아는 것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여 학습을 시작하기 전에 학생들이 알고 있는 것을 환기시킨다.
 - 한국어 학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이므로, 학습자의 모국어를 사용해 묻고 답할 수 있다.
2. 교재를 보며 학생들에게 한국어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알려 준다.
 - 한글 자모를 배우는 것이 예비편의 주된 목적이므로 이 부분은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한다.
 - 한글의 제자 원리나 한글의 우수성 등은 여기에서 직접 다루기보다 한글 자모에 대한 학습이 끝난 후 문화 수업으로 다룰 수 있다.

➡ 누리-세종학당의 한글자모학습 영상

- 누리-세종학당 홈페이지에서는 한글 자모학습 영상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어와 한글 소개부터 앞으로 진행될 자모 수업 전반에 걸쳐 필요한 부분을 참고하거나 활용할 수 있다. 본 콘텐츠는 한국어, 영어, 베트남어, 중국어, 일본어, 태국어, 핀란드어, 필리핀어의 총 8개 국어로 제공되고 있다.

- 누리-세종학당 홈페이지 (<http://www.sejonghakdang.org>)
누리-세종학당 홈페이지 > 한국어를 배우요 > 한국어 강의 > 한글자모학습

2. 한글 자모 1) 자모와 음절 1

- **개요:** 기본 모음 10개와 기본 자음 14개를 읽고 쓸 수 있다. 그리고 '모음' 또는 '자음+모음'으로 이루어진 음절을 읽고 쓸 수 있다.

(1) 모음 1

먼저 모음 글자를 보면서 각 글자에 해당하는 발음을 익힌다. 그리고 각 모음 글자를 읽고 쓰는 연습을 한 뒤, 모음 발음을 듣고 그 발음에 해당하는 모음 글자를 고르는 연습을 한다.

1. 모음 카드를 준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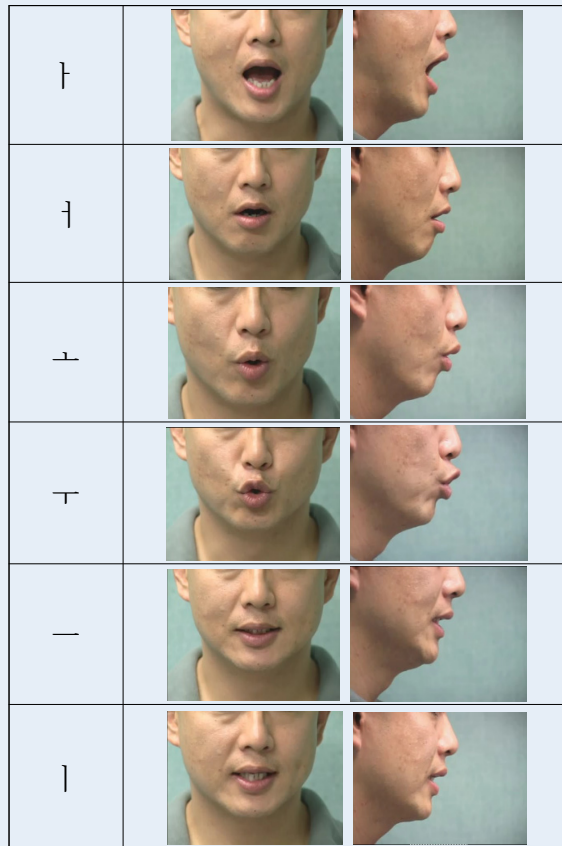
- 교사는 학생들이 학습할 모음을 미리 종이에 적어 카드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다.

2. 교재에 제시된 순서대로 모음 카드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를 보여 주면서 따라 읽게 한다.

- 단모음과 이중모음의 발음 차이를 알 수 있도록 'ㅏ, ㅑ'를 천천히 반복해서 발음해 준다. 이때 발음하는 선생님의 입모양을 잘 보도록 지도한다.
- 선생님의 입모양을 잘 보고 따라 읽게 한다. 2-3회 반복하여 연습시킨다.
- 'ㅓ, ㅕ', 'ㅗ, ㅛ', 'ㅜ, ㅠ'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한다.

참고

- 모음 'ㅏ, ㅓ, ㅗ, ㅜ, ㅡ, ㅣ' 발음의 입모양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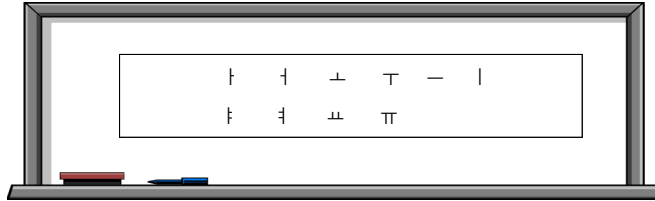
(출처: 국립국어원, 바른 소리)

3. 모음 카드만 보여 주고 해당 모음을 발음해 보게 한다.

- 학생들이 ‘ㅣ/ㅓ’, ‘ㅣ/ㅛ’, ‘ㅡ/ㅜ’ 구별을 어려워하므로 이 발음들을 다시 한 번 중점적으로 연습하게 한다.
- 교사는 모음 카드를 교재의 제시 순서대로 들어 학생들에게 읽게 한 뒤, 학생들이 대답하면 정확한 발음을 다시 들려준다. 다음으로 교사는 모음 카드를 순서에 상관없이 제시하여 학생들에게 읽게 하는 연습을 추가로 할 수 있다.
- 발음이 정확하지 않은 학생은 개별적으로 발음을 교정해 준다.
- 누리-세종학당세종학당의 ‘바른소리’, ‘한글독음프로그램’ 등의 멀티미디어 자료를 통해 입모양을 보면서 발음을 듣게 할 수 있다.

4. 교재 18쪽의 ①을 이용하여 모음 10개를 읽고 쓰는 연습을 하게 한다.

- 칠판에 다음과 같이 모음 10개를 제시한다.



- 교재에 제시된 획순에 따라서 모음을 쓰는 순서를 천천히 보여 준다.
- 세로획은 위에서 아래로, 가로획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쓴다는 것을 주의시킨다.
- 손가락으로 허공에 모음 글자를 써 보는 연습을 2-3회 반복해서 해 보게 한다.
- 교재 18쪽의 ①을 각자 해 보게 한다.
- 교사는 돌아다니면서 학생들에게 모음 글자를 읽어 보게 하고 획순에 따라 쓸 수 있는지 개별적으로 확인한다.

5. <활동 1>을 이용하여 지금까지 학습한 모음을 다시 한 번 읽고 쓰는 연습을 하게 한다.

- <활동 1>에서 모음을 적을 때에는 소리 내어 발음하면서 쓰게 한다.
- 교사는 돌아다니면서 학생들이 정확하게 발음하고 있는지 개별적으로 확인한다.
- <활동 1>이 끝난 뒤 교사는 학생들에게 모음 발음을 들려주고 공책에 쓰게 하는 받아쓰기 활동을 추가로 할 수 있다.

6. 교재 19쪽의 ②를 이용하여 모음의 발음을 듣고 구별하는 연습을 하게 한다.

- 문제의 지시문을 읽어 준 뒤, 시디(CD)를 듣고 ①번 문제를 같이 풀어 본다.
- 시디(CD)를 듣고 ②-⑩번 문제를 풀게 한다.
- 시디(CD)를 한 번 더 듣고 답을 수정할 기회를 준다.
- 교사가 정답을 확인해 준다.
- 제시된 모음을 교사가 먼저 읽고 따라 읽게 한다.
- 교재에 제시된 듣기 문제 외에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모음의 구별 연습을 추가로 할 수 있다.

7. 누리-세종학당의 한글자모학습 영상 가운데 해당하는 부분을 이용하여 추가로 연습하게 할 수 있다.

➡ 《한글자모학습》 2차시. 기본 모음
 > 원리, 조합하기, 연습하기, 타자 연습, 평가하기

(2) 자음 1

먼저 자음 글자를 보면서 각 글자에 해당하는 발음을 익힌다. 그리고 각 자음 글자를 읽고 쓰는 연습을 한 뒤, 발음을 듣고 그 발음에 해당하는 자음 글자를 고르는 연습을 한다.

1. 자음 카드(자음+)를 준비한다.
 - 교사는 학생들이 학습할 자음을 미리 종이에 적어 카드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다.
2. 교재에 제시된 순서대로 자음 카드를 보여 주면서 따라 읽게 한다.
 - 자음은 홀로 발음하기 어려우므로 모음 'ㅏ'를 붙여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의 형식으로 발음 연습을 시킨다.
 - '기역, 니은, 디귿'과 같은 자음의 명칭으로 발음을 가르치지 않도록 주의한다.

참고

- 각 자음의 발음은 다음과 같다.

ㄱ: 혀의 뒤쪽을 입천장의 부드러운 부분에 붙였다가 떼면서 입안의 공기를 내보낸다.
 ㄴ: 혀의 끝부분을 윗니 뒤쪽의 잇몸에 붙였다가 떼면서 코로 공기를 내보낸다.
 ㄷ: 혀의 끝부분을 윗니 뒤쪽의 잇몸에 붙였다가 떼면서 입안의 공기를 내보낸다.
 ㄹ: 혀를 펴고 윗니 뒤쪽의 잇몸 부분을 혀의 끝부분으로 살짝 치면서 공기를 내보낸다.
 ㅁ: 윗입술과 아랫입술을 붙였다가 떼면서 코로 공기를 내보낸다.
 ㅂ: 윗입술과 아랫입술을 붙였다가 떼면서 입안의 공기를 내보낸다.
 ㅅ: 혀끝을 아랫니 뒤쪽에 두고 혀와 입천장 사이를 붙이지 말고 가까이 대고 그 사이로 공기를 내보낸다.
 ㅇ: 혀의 뒤쪽을 입천장의 부드러운 부분에 붙였다가 떼면서 코로 공기를 내보낸다.
 ㅈ: 혀의 앞쪽을 딱딱한 입천장에 붙였다가 조금만 떼면서 입안의 공기를 내보낸다.
 ㅊ: 혀의 움직임은 'ㅈ'와 동일하되, 입안의 공기를 'ㅈ'보다 더 세게 내보낸다.
 ㅋ: 혀의 움직임은 'ㄱ'과 동일하되, 입안의 공기를 'ㄱ'보다 더 세게 내보낸다.
 ㅌ: 혀의 움직임은 'ㄷ'과 동일하되, 입안의 공기를 'ㄷ'보다 더 세게 내보낸다.
 ㅍ: 혀의 움직임은 'ㅂ'과 동일하되, 입안의 공기를 'ㅂ'보다 더 세게 내보낸다.
 ㅎ: 입의 모양은 모음 'ㅏ'와 동일하게 하면서 입의 안쪽에서부터 공기를 세게 내보낸다.

- '가~하'까지 자음 카드를 보여 주면서 따라 읽게 한다. 2-3회 반복하여 연습시킨다.
3. 자음 카드만 보여 주고 해당 자음을 발음해 보게 한다.
 - 교사는 자음 카드를 교재의 제시 순서대로 들어 학생들에게 읽게 한 뒤, 학생들이 대답하면 정확한 발음을 다시 들려준다. 다음으로 교사는 자음 카드를 순서에 상관없이 제시하여 학생들에게 읽게 하는 연습을 추가로 할 수 있다.
 4. 학생들에게 자음 카드를 나누어 준 후 교사의 발음을 듣고 자음 카드를 골라 교사에게 보여 주는 활동을 한다.
 5. 교재 20쪽의 연습 ①을 이용하여 자음 14개를 읽고 쓰는 연습을 하게 한다.
 - 교재에 제시된 확순에 따라서 자음을 쓰는 순서를 천천히 보여 준다.
 - 세로획은 위에서 아래로, 가로획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쓴다는 것을 주의시킨다.
 - 손가락으로 허공에 자음 글자를 써 보는 연습을 2-3회 반복해서 해 보게 한다.
 - 교재 20쪽의 연습 ①을 각자 해 보게 한다.
 - 교사는 돌아다니면서 학생들에게 자음 글자를 읽어 보게 하고 확순에 따라 쓸 수 있는지 개별적으로 확인한다.
 6. <활동 2>를 이용하여 지금까지 학습한 자음을 다시 한 번 읽고 쓰는 연습을 하게 한다.
 - <활동 2>에서 자음을 적을 때에는 소리 내어 발음하면서 쓰게 한다.
 - 교사는 돌아다니면서 학생들이 정확하게 발음하고 있는지 개별적으로 확인한다.
 - <활동 2>가 끝난 뒤 교사는 학생들에게 자음 발음을 들려주고 공책에 쓰게 하는 받아쓰기 활동을 추가로 할 수 있다.
 7. 교재 21쪽의 연습 ②를 이용하여 자음 발음을 듣고 구별하는 연습을 하게 한다.
 - 문제의 지시문을 읽어 준 뒤, 시디(CD)를 듣고 ①번 문제를 같이 풀어 본다.
 - 시디(CD)를 듣고 ②-⑩번 문제를 풀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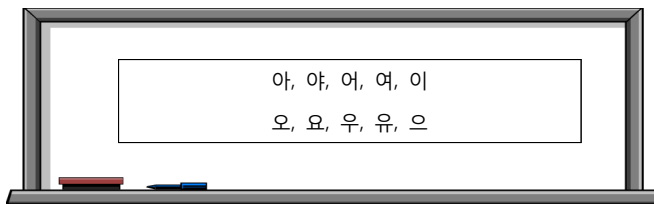
- 시디(CD)를 한 번 더 듣고 답을 수정할 기회를 준다.
 - 교사가 정답을 확인해 준다.
 - 제시된 자음을 교사가 먼저 읽고 따라 읽게 한다.
 - 교재에 제시된 듣기 문제 외에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자음의 구별 연습을 추가로 할 수 있다.
8. 누리-세종학당의 한글자모학습 영상 가운데 해당하는 부분을 이용하여 추가로 연습하게 할 수 있다.

➡ 《한글자모학습》 3차시, 기본 자음(1), 4차시, 기본 자음(2)
> 원리, 조합하기, 연습하기, 타자 연습, 평가하기

(3) 음절 1

‘모음’ 혹은 ‘자음+모음’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음절의 구성 원리를 이해하고, 각 음절을 읽고 쓰는 연습을 한다. 그리고 발음을 듣고 그 발음에 해당하는 음절을 고르는 연습을 한다. 또한 받침이 없는 음절로 이루어진 단어를 읽고 쓰는 연습과 발음을 듣고 그 발음에 해당하는 단어를 찾는 연습을 한다.

1. 자음 카드와 모음 카드를 준비한다.
 - 교사는 학생들이 학습할 모음과 자음을 종이에 적어 카드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다.
2. 음절의 구성 방법 중 먼저 모음만으로 음절이 구성되는 경우를 설명해 준다.
 - 교재에 제시된 ‘오’와 ‘이’를 보고 ‘ㅇ’가 모음의 어느 쪽에 쓰여 있는지 물어 본다.
 - 모음 가운데 ‘ㅏ, ㅑ, ㅓ, ㅕ, ㅣ’는 글자의 왼쪽에 ‘ㅇ’를 쓴다는 사실을 알려 준다. 그리고 이때의 ‘ㅇ’는 자음이 없다는 의미임을 알려 준다.
 - ‘ㅛ, ㅠ, ㅜ, ㅠ,ㅡ’는 글자의 위쪽에 ‘ㅇ’를 쓴다는 사실을 알려 준다. 마찬가지로 이때의 ‘ㅇ’는 자음이 없다는 의미임을 알려 준다.
 - 모음만으로 이루어진 음절을 쓸 때에는 항상 앞에 ‘ㅇ’를 붙여 쓴다는 것을 알려 준다.
 - ‘아, 야, 어, 여, 오, 요, 우, 유, 으, 이’를 칠판에 쓰면서 한 글자씩 보여 주며 천천히 읽어 주고 따라하게 한다.



- ‘아~이’까지 허공에 손가락으로 써 보면서 따라 읽게 한다.
 - 음절의 구성 방법을 알려 주기 위해 제시되었던 ‘오이’의 의미를 알려 줄 수 있다.
3. <활동 3>을 이용하여 지금까지 학습한 음절을 읽고 쓰는 연습을 하게 한다.
 - <활동 3>에서 모음 하나로 구성된 음절을 적을 때 소리 내어 발음하면서 쓰게 한다.
 - 교사는 돌아다니면서 학생들이 정확하게 발음하고 있는지 개별적으로 확인한다.
 4. 음절의 구성 방법 중 자음과 모음의 결합으로 음절이 구성되는 경우를 설명해 준다.
 - 교재에 제시된 ‘나’와 ‘무’를 보고 자음 글자가 모음의 어느 쪽에 쓰여 있는지 물어 본다.
 - ‘ㅏ, ㅑ, ㅓ, ㅕ, ㅣ’는 그 왼쪽에 자음을 쓴다는 사실을 알려 준다. 자음 카드 ‘ㄱ’과 ‘ㅏ, ㅑ, ㅓ, ㅕ, ㅣ’를 결합시켜 음절을 만들고 각 음절을 따라 읽게 한다.
 - ‘ㅛ, ㅠ, ㅜ, ㅠ,ㅡ’는 그 위쪽에 자음을 쓴다는 사실을 알려 준다. 자음 카드 ‘ㄱ’과 ‘ㅛ, ㅠ, ㅜ, ㅠ,ㅡ’를 결합시켜 음절을 만들고 각 음절을 따라 읽게 한다.
 - ‘가~기’까지 교재에 제시된 순서대로 허공에 손가락으로 써 보면서 따라 읽게 한다.
 - 다른 자음 카드를 가지고 위의 과정을 반복한다. 전체를 반복할 필요는 없으며 기본적인 음절

- 구성의 원리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반복하여 연습하게 한다.
- 음절의 구성 방법을 알려 주기 위해 제시되었던 '나무'의 의미를 알려 줄 수 있다.
- 교사가 자음 카드와 모음 카드를 임의로 결합하여 보여 주면 학생들이 그 음절을 발음해 보게 한다.
 - 교재 22쪽의 ①을 이용하여 자음 14개와 모음 10개의 결합형을 읽고 쓰는 연습을 하게 한다.
 - 교재 22쪽의 ①의 '가~기'를 허공에 손가락으로 쓰면서 따라 읽게 한다.
 - '나~니'까지 교사와 학생이 함께 해 본 후, 나머지를 각자 해 보게 한다.
 - 교사는 돌아다니면서 학생들에게 각 음절을 읽어 보게 하고 정확하게 발음하고 있는지 개별적으로 확인한다.
 - '자, 저, 죠, 쥬'는 그 발음이 '자, 저, 조, 주'와 동일하다는 것을 알려 주어, 철자에 따라 다르게 발음하지 않도록 주의시킨다.
 - <활동 4>는 교재 22쪽의 ①과 동일한 것으로 복습이나 숙제 등으로 활용될 수 있다.
 - <활동 5>를 이용하여 모음으로만 이루어진 단어를 읽고 쓰는 연습을 하게 한다.
 - 교사는 <활동 5>에 제시된 단어를 활용하여 단어 카드를 직접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다음 쪽의 '단어 카드 제작 및 수업 활용 방법'의 1번 참고)
 - 교사는 전체 학생을 향하여 단어 카드를 보여 주며 교사의 발음을 듣고 따라 읽게 한다. 이 과정은 필요에 따라 반복할 수 있다.
 - 교사는 단어 카드를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고 짝 활동을 하게 한다.(다음 쪽의 '단어 카드 제작 및 수업 활용 방법'의 2번 참고)
 - 짝 활동을 통해 단어의 발음에 익숙해지면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활동 5>의 단어를 소리 내어 읽으면서 쓰는 연습을 하게 한다.
 - 쓰기 연습이 끝나면 단어 카드를 활용해 교사가 단어를 불러 주고 학생이 빠르게 단어 카드를 들어 올리는 게임을 진행할 수 있다.(다음 쪽의 '단어 카드 제작 및 수업 활용 방법'의 3번 참고)
 - 교재 23쪽의 연습 ②를 이용하여 음절의 발음을 듣고 구별하는 연습을 하게 한다.
 - 문제의 지시문을 읽어 준 뒤, 시디(CD)를 듣고 ①번 문제를 같이 풀어 본다.
 - 시디(CD)를 듣고 ②-⑩번 문제를 풀게 한다.
 - 시디(CD)를 한 번 더 듣고 답을 수정할 기회를 준다.
 - 교사가 정답을 확인해 준다.
 - 제시된 음절을 교사가 먼저 읽고 따라 읽게 한다.
 -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음절의 발음을 확인하고 그 발음 방법에 대해 다시 한 번 알려 준다.
 - 교재 24쪽의 ③을 이용하여 단어를 읽고 써 보는 연습을 하게 한다.
 - 학생들에게 먼저 단어를 읽어 보게 한다.
 - 시디(CD)를 듣고 정확하게 읽었는지 확인한 뒤, 교사가 먼저 읽고 따라 읽는 연습을 반복한다.
 - '모자', '구두', '바지', '포도'의 경우, 뒤 음절의 자음 '자, 두, 지, 도'가 유성음으로 발음된다는 사실을 알려 준다.
 - 학생들이 각자 단어를 읽고 써 보도록 하고, 교사는 돌아다니면서 학생들에게 단어를 읽어 보게 하고 정확하게 발음하고 있는지 개별적으로 확인한다.
 - <활동 6>을 이용하여 지금까지 학습한 모음과 ㄱ~ㅈ까지의 자음으로 이루어진 단어를 읽고 쓰는 연습을 하게 한다.
 - <활동 5>와 동일하게 단어 카드 제시, 짝 활동, 쓰기 연습, 게임의 순서로 수업을 진행한다.
 - <활동7>을 이용하여 지금까지 학습한 모음과 ㄱ~ㅎ까지의 자음으로 이루어진 단어를 읽고 쓰는 연습을 하게 한다.
 - 위와 같이 단어 카드 제시, 짝 활동, 쓰기 연습, 게임의 순서로 수업을 진행한다.
 - <활동 5, 6, 7>을 마무리한 뒤 교사는 학생들에게 단어를 들려주고 공책에 쓰게 하는 받아쓰기 활동을 추가로 할 수 있다.
 - 교재 24쪽의 ④를 이용하여 단어를 듣고 그 해당하는 단어를 찾는 연습을 하게 한다.
 - 문제의 지시 내용을 읽고 확인한 뒤, 시디(CD)를 듣고 해당하는 단어를 찾아 표시하게 한다.

- 시디(CD)를 한 번 더 듣고 답을 수정할 기회를 준다.
- 교사가 정답을 확인해 준다.
- 제시된 단어를 교사가 먼저 읽고 따라 읽게 한다.

13. 누리-세종학당의 한글자모학습 영상 가운데 해당하는 부분을 이용하여 추가로 연습하게 할 수 있다.

➡ 《한글자모학습》 3차시. 기본 자음(1), 4차시. 기본 자음(2)
 > 원리, 조합하기, 연습하기, 타자 연습, 평가하기

참고 단어 카드 제작 및 수업 활용 방법



나무

단어 카드 예시

1. 교사는 다음과 같이 단어 카드를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
 - 활동지에 제시된 단어를 활용하여 단어 카드를 만든다.
 - 왼쪽의 단어 카드 예시와 같이 그림을 위에, 단어를 아래에 배치한다.
 - 그림과 단어 사이를 접어서 사용할 수 있다.
 - 단어 카드에 사용할 그림은 누리-세종학당의 그림 자료나 저작권에 문제가 되지 않는 그림이나 사진 등을 검색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2. 교사는 단어 카드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짝 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 교사는 카드를 전체 학생에게 보여 주며 그림과 단어 사이를 접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 짝이 된 두 명에게 단어 카드 한 세트를 주어 짝 활동을 준비시킨다.(교사는 이를 위해 단어 카드 세트를 학생 수에 맞게 준비한다.)
 - 먼저 한 학생이 단어 카드를 보여 주면 다른 학생이 제시된 단어를 읽는다. 모든 단어를 읽으면 역할을 바꾸어 연습한다.
 - 단어 읽기 연습이 충분히 됐으면 글자 부분은 접어 그림 부분만 사용하여 짝 활동을 한다. 한 학생이 카드 그림을 보여 주면 다른 학생은 그 그림에 맞는 단어를 말한다. 모든 단어를 연습하면 역할을 바꾸어 진행한다.
3. 교사는 단어 카드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게임을 진행할 수 있다.
 - 먼저 교사는 학생들에게 그림 부분만 보이도록 접은 단어 카드를 책상 위에 펼쳐 놓게 한다.
 - 교사가 임의의 단어를 크게 소리 내어 말하면 학생들은 그 단어에 해당하는 카드를 찾아 재빠르게 들어 올린다.
 - 교사는 어떤 사람이 가장 빨리 들어 올렸는지 확인해 주면서 학생들의 흥미를 유도한다.

2. 한글 자모 2) 자모와 음절 2

- **개요:** 모음 글자 11개와 된소리 자음 글자 5개를 읽고 쓸 수 있다. 그리고 ‘모음’ 또는 ‘자음+모음’으로 이루어진 음절을 읽고 쓸 수 있다.

(1) 모음 2

먼저 모음 글자를 보면서 각 글자에 해당하는 발음을 익힌다. 그리고 각 모음 글자를 읽고 쓰는 연습을 한 뒤, 모음 발음을 듣고 그 발음에 해당하는 모음 글자를 고르는 연습을 한다.

1. 모음 카드를 준비한다.

- 교사는 학생들이 학습할 모음과 자음을 종이에 적어 카드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다.

2. 교재에 제시된 순서대로 모음 카드 ‘개, 꺄, 꺅, 꺆, 나, 내, 니, 뉘, 내, 뉘, 니’를 보여 주면서 따라 읽게 한다.

- 교사의 입모양을 잘 보고 따라 읽게 한다. 2-3회 반복하여 연습시킨다.

참고

- 모음 ‘개, 꺅’ 발음의 입모양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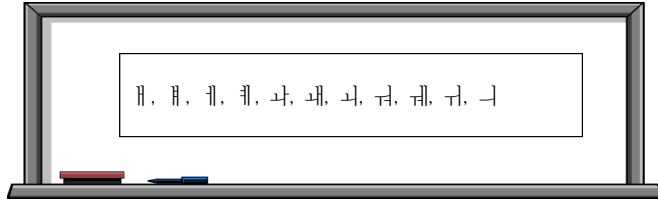
(출처: 국립국어원, 바른 소리)

- ‘개, 꺅’, ‘꺄, 꺆’, ‘내, 니, 뉘’는 현재 한국 사람의 발음에서 잘 구별되지 않으므로 그 구별에 지나치게 집중하여 교육하지 않도록 한다.
- ‘니, 뉘’는 단모음보다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단모음으로 발음하는 것에 지나치게 집중하여 교육하지 않도록 한다.

3. 모음 카드만 보여 주고 해당 모음을 발음해 보게 한다.

- 교사는 모음 카드를 교재의 제시 순서대로 들어 학생들에게 읽게 한 뒤, 학생들이 대답하면 정확한 발음을 다시 들려준다. 다음으로 교사는 모음 카드를 순서에 상관없이 제시하여 학생들에게 읽게 하는 연습을 추가로 할 수 있다.
- 학생들이 어떤 글자와 발음을 잘 연결시키지 못하는지 확인하고, 그 글자와 발음을 중점적으로 연습시킨다.
- 발음이 정확하지 않은 학생은 개별적으로 발음을 교정해 준다.
- 누리-세종학당의 ‘바른소리’, ‘한글독음프로그램’ 등의 멀티미디어 자료를 통해 입모양을 보여 주면서 발음을 듣게 할 수 있다.

4. 교재 25, 26쪽의 ㉠을 이용하여 모음 글자 11개를 읽고 쓰는 연습을 하게 한다.
- 칠판에 다음과 같이 모음 11개를 제시한다.



- 교재에 제시된 획순에 따라서 모음을 쓰는 순서를 천천히 보여 준다.
 - 세로획은 위에서 아래로, 가로획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쓴다는 것을 주의시킨다.
 - 글자를 읽으면서 손가락으로 허공에 써 보는 연습을 2-3회 반복해서 해 보게 한다.
 - 교재 25, 26쪽의 ㉠을 각자 해 보게 한다.
 - 교사는 돌아다니면서 학생들에게 모음 글자를 읽어 보게 하고 획순에 따라 쓸 수 있는지 개별적으로 확인한다.
5. <활동 8>을 이용하여 지금까지 학습한 모음을 다시 한 번 읽고 쓰는 연습을 하게 한다.
- <활동 8>에서 모음을 적을 때에는 소리 내어 발음하면서 쓰게 한다.
 - 교사는 돌아다니면서 학생들이 정확하게 발음하고 있는지 개별적으로 확인한다.
 - <활동 8>이 끝난 뒤 교사는 학생들에게 모음 발음을 들려주고 공책에 쓰게 하는 받아쓰기 활동을 추가로 할 수 있다.
6. 교재 26쪽의 ㉡를 이용하여 모음 발음을 듣고 구별하는 연습을 하게 한다.
- 문제의 지시문을 읽어 준 뒤, 시디(CD)를 듣고 ㉠번 문제를 같이 풀어 본다.
 - 시디(CD)를 듣고 ㉡-㉣번 문제를 풀게 한다.
 - 시디(CD)를 한 번 더 듣고 답을 수정할 기회를 준다.
 - 교사가 정답을 확인해 준다.
 - 제시된 모음을 교사가 먼저 읽고 따라 읽게 한다.
 - 교재에 제시된 듣기 문제 외에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모음의 구별 연습을 추가로 할 수 있다.
7. 누리-세종학당의 한글자모학습 영상 가운데 해당하는 부분을 이용하여 추가로 연습하도록 할 수 있다.

➡ 《한글자모학습》 6차시. 복합 모음
> 원리, 조합하기, 연습하기, 타자 연습, 평가하기

(2) 자음 2

먼저 된소리(경음) 글자를 보면서 각 글자에 해당하는 발음을 익힌다. 그리고 각 된소리 글자를 읽고 쓰는 연습을 한 뒤, 발음을 듣고 그 발음에 해당하는 글자를 고르는 연습을 한다.

1. 자음 카드(자음+ㅏ)를 준비한다.
 - 교사는 학생들이 학습할 자음을 종이에 적어 카드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다.
2. 교재에 제시된 순서대로 자음 카드를 보여 주면서 따라 읽게 한다.
 - 자음은 홀로 발음하기 어려우므로 모음 'ㅏ'를 붙여 '까, 따, 빠, 짜, 찌'의 형식으로 발음 연습을 시킨다.

- ‘쌍기역, 쌍디근’ 등과 같은 자음의 명칭으로 발음을 가르치지 않도록 주의한다.

[참고]

- 각 자음의 발음은 다음과 같다.

ㄱ: 혀의 움직임은 ‘ㄱ’과 동일하되, 턱을 당기고 목에 힘을 줘서 공기를 막았다가 공기를 내보내면서 소리를 낸다.
 ㄷ: 혀의 움직임은 ‘ㄷ’과 동일하되, 턱을 당기고 목에 힘을 줘서 공기를 막았다가 공기를 내보내면서 소리를 낸다.
 ㅃ: 혀의 움직임은 ‘ㅃ’과 동일하되, 턱을 당기고 목에 힘을 줘서 공기를 막았다가 공기를 내보내면서 소리를 낸다.
 ㅈ: 혀의 움직임은 ‘ㅈ’과 동일하되, 턱을 당기고 목에 힘을 줘서 공기를 막았다가 공기를 내보내면서 소리를 낸다.
 ㅉ: 혀의 움직임은 ‘ㅉ’과 동일하되, 턱을 당기고 목에 힘을 줘서 공기를 막았다가 공기를 내보내면서 소리를 낸다.

- 자음 카드를 보여 주면서 따라 읽게 한다. 2-3회 반복하여 연습시킨다.
3. 자음 카드만 보여 주고 해당 자음을 발음해 보게 한다.
 - 교사는 자음 카드를 교재의 제시 순서대로 들어 학생들에게 읽게 한 뒤, 학생들이 대답하면 정확한 발음을 다시 들려준다. 다음으로 교사는 자음 카드를 순서에 상관없이 제시하여 학생들에게 읽게 하는 연습을 추가로 할 수 있다.
 4. 학생들에게 자음 카드를 나누어 준 후 교사의 발음을 듣고 자음 카드를 골라 교사에게 보여 주는 활동을 한다.
 5. 교재 27쪽의 ①을 이용하여 된소리 글자 5개를 읽고 쓰는 연습을 하게 한다.
 - 교재에 제시된 획순에 따라서 자음 쓰는 순서를 천천히 보여 준다.
 - 세로획은 위에서 아래로, 가로획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는 것을 주의시킨다.
 - 손가락으로 허공에 자음 글자를 써 보는 연습을 2-3회 반복해서 해 보게 한다.
 - 교재 27쪽의 ①을 각자 해 보게 한다.
 - 교사는 돌아다니면서 학생들에게 글자를 읽어 보게 하고 획순에 따라 쓸 수 있는지 개별적으로 확인한다.
 6. <활동 9>의 1번을 이용하여 다시 한 번 지금까지 학습한 된소리 글자를 읽고 쓰는 연습을 하게 한다.
 - <활동 9>의 1번에 된소리 글자를 적을 때 소리 내어 읽으면서 쓰게 한다.
 - 교사는 돌아다니면서 학생들이 정확하게 발음하고 있는지 개별적으로 확인한다.
 7. <활동 9>의 2번을 이용하여 지금까지 학습한 자음 글자 ‘ㄱ, ㄷ, ㅃ, ㅈ, ㅉ’과 ‘ㄱ, ㄷ, ㅃ, ㅈ, ㅉ’ 그리고 ‘ㅋ, ㅌ, ㅍ, ㅊ’을 비교하면서 읽고 쓰는 연습을 하게 한다.
 - 교사는 칠판에 ‘ㄱ ㄱ ㅋ’, ‘ㄷ ㄷ ㅌ’, ‘ㅃ ㅃ ㅍ’, ‘ㅈ ㅈ ㅊ’, ‘ㅉ ㅉ’을 쓰고 그 발음을 비교하며 읽어 주고 학생들은 교사의 발음을 듣고 따라한다.
 - <활동 9>의 2번에 예사소리(평음), 된소리(경음), 거센소리(격음)를 적을 때 소리 내어 읽으면서 쓰게 한다.
 - 교사는 돌아다니면서 학생들이 정확하게 발음하고 있는지 개별적으로 확인한다.
 - <활동 9>가 모두 끝난 뒤 교사는 학생들에게 자음 발음을 들려주고 공책에 쓰게 하는 받아쓰기 활동을 추가로 할 수 있다.
 8. 교재 27쪽의 ②를 이용하여 자음 발음을 듣고 구별하는 연습을 하게 한다.
 - 문제의 지시문을 읽어 준 뒤, 시디(CD)를 듣고 ①번 문제를 같이 풀어 본다.
 - 시디(CD)를 듣고 ②-⑩번 문제를 풀게 한다.
 - 시디(CD)를 한 번 더 듣고 답을 수정할 기회를 준다.
 - 교사가 정답을 확인해 준다.
 - 제시된 자음을 교사가 먼저 읽고 따라 읽게 한다.
 - 교재에 제시된 듣기 문제 외에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자음의 구별 연습을 추가로 할 수 있다.
 9. 누리-세종학당의 한글자모학습 영상 가운데 해당하는 부분을 이용하여 추가로 연습하도록 할 수 있다.

▶ 《한글자모학습》 7차시. 쌍자음
> 원리, 조합하기, 연습하기, 타자 연습, 평가하기

(3) 음절 2

받침이 없는 음절로 이루어진 단어를 읽고 쓸 수 있으며, 발음을 듣고 그 발음에 해당하는 단어를 찾는 연습을 한다.

- 1. 교재 28쪽의 ①을 이용하여 단어를 읽고 써 보는 연습을 하게 한다.**
 - 학생들에게 먼저 단어를 읽어 보게 한다.
 - 시디(CD)를 듣고 정확하게 읽었는지 확인한 뒤, 교사가 먼저 읽고 따라 읽는 연습을 반복한다.
 - ‘베개’, ‘깨다’, ‘떼다’, ‘새다’, ‘찌다’의 경우, 뒤 음절의 자음 ‘개, 다’가 유성음으로 발음된다는 사실을 알려 준다.
 - 학생들에게 각자 단어를 읽고 써 보게 하고, 교사는 돌아다니면서 단어를 읽어 보게 한 후 정확하게 발음하고 있는지 개별적으로 확인한다.
- 2. <활동 10>을 이용하여 지금까지 학습한 모음과 자음으로 이루어진 단어를 읽고 쓰는 연습을 하게 한다.**
 - 교사는 <활동 10>에 제시된 단어를 활용하여 단어 카드를 직접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음절 1'에서 소개한 '단어 카드 제작 및 수업 활용 방법'의 1번 참고)
 - 교사는 전체 학생을 향하여 단어 카드를 보여 주며 교사의 발음을 듣고 따라 읽게 한다. 이 과정은 필요에 따라 반복할 수 있다.
 - 교사는 단어 카드를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고 짝 활동을 하게 한다.('음절 1'에서 소개한 '단어 카드 제작 및 수업 활용 방법'의 2번 참고)
 - 짝 활동을 통해 단어의 발음에 익숙해지면 학생들에게 각자 <활동 10>의 단어를 소리 내어 읽으면서 쓰게 한다.
 - 쓰기 연습이 끝나면 단어 카드를 활용해 교사가 단어를 불러 주고 학생이 빠르게 단어 카드를 들어 올리는 게임을 진행할 수 있다.('음절 1'에서 소개한 '단어 카드 제작 및 수업 활용 방법'의 3번 참고)
- 3. <활동 11>을 이용하여 지금까지 학습한 모음과 된소리로 이루어진 단어를 읽고 쓰는 연습을 하게 한다.**
 - 위와 같이 단어 카드 제시, 짝 활동, 쓰기 연습, 게임의 순서로 수업을 진행한다.
 - <활동 10, 11>을 마무리한 뒤 교사는 학생들에게 단어를 들려주고 공책에 쓰게 하는 받아쓰기 활동을 추가로 할 수 있다.
- 4. 교재 28쪽의 ②를 이용하여 단어를 듣고 그 해당하는 단어를 찾는 연습을 하게 한다.**
 - 문제의 지시 내용을 읽고 확인한 뒤, 시디(CD)를 듣고 해당하는 단어를 찾아 표시하게 한다.
 - 시디(CD)를 한 번 더 듣고 답을 수정할 기회를 준다.
 - 교사가 정답을 확인해 준다.
 - 제시된 단어를 교사가 먼저 읽고 따라 읽게 한다.
- 5. 누리-세종학당의 한글자모학습 영상 가운데 해당하는 부분을 이용하여 추가로 연습하도록 할 수 있다.**

▶ 《한글자모학습》 7차시. 쌍자음
> 원리, 조합하기, 연습하기, 타자 연습, 평가하기

2. 한글 자모 3) 받침과 음절

- ◎ **개요:** 받침에 대해 이해하고 받침이 포함된 음절을 읽고 쓸 수 있다. ‘자음+모음+자음’으로 이루어진 음절을 듣고 해당하는 음절을 고를 수 있다.

(1) 받침

먼저 받침에 대해 이해하고 받침의 발음을 익힌다. 그리고 받침이 포함된 글자를 읽고 쓰는 연습을 한다.

1. 자모 카드를 준비한다.

- 교사는 학생들이 학습할 내용을 미리 종이에 적어 카드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다.

2. 받침의 개념을 이해시킨다.

- 자모 카드로 ‘이’를 보여 주고 학생들에게 읽게 한 뒤, ‘이’ 아래에 ‘ㅂ’을 붙여 준다.
- 교사는 ‘이’와 ‘입’을 번갈아 발음해 주면서 따라 읽게 한다.
- ‘입’의 ‘ㅂ’에 동그라미를 표시하고 이것을 ‘받침’이라고 한다는 것을 알려 준다.
- ‘받침’의 개념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아, 안’, ‘다, 달’, ‘바, 밤’ 등도 위와 동일한 과정을 반복하여 연습하게 한다.

3. 교재 29쪽의 ①을 이용하여 모든 자음이 받침으로 쓰일 수 있지만, 그 가운데 7가지의 자음만 발음된다는 것을 설명해 준다. 교재에 제시된 순서대로 먼저 받침소리 ‘ㄱ’에 대해 설명해 준다.

- ‘수박, 밖, 부엌’을 발음해 주고 따라 읽게 한다. 받침 ‘ㄱ, ㅋ, ㆁ’에 동그라미를 그리고 그 발음이 같은지 다른지 물어 본다.
- 받침이 ‘ㄱ, ㅋ, ㆁ’인 경우 받침소리가 똑같이 ‘ㄱ’으로 발음된다는 사실을 알려 준다.
- 받침소리 ‘ㄱ’을 발음할 때 혀의 뒷부분이 부드러운 입천장에 올라가 붙어 있는 모습을 손이나 그림으로 표현해 주어 발음이 끝날 때까지 그 상태를 유지하도록 알려 준다.
- 2-3회 반복하여 따라 읽는 연습을 하게 한다.

4. 받침소리 ‘ㄴ’에 대해 설명해 준다.

- ‘안, 눈, 라면’을 발음해 주고 따라 읽게 한다. 받침 ‘ㄴ’에 동그라미를 그린다.
- 받침소리 ‘ㄴ’을 발음할 때 혀의 끝부분이 윗니 뒤쪽의 잇몸에 올라가 붙어 있는 모습을 손이나 그림으로 표현해 주어 발음이 끝날 때까지 그 상태를 유지하도록 알려 준다.
- 2-3회 반복하여 따라 읽는 연습을 하게 한다.

5. 받침소리 ‘ㄷ’에 대해 설명해 준다.

- ‘술가락, 옷, 갯지요, 낫, 꽃, 밭, 히읏’을 발음해 주고 따라 읽게 한다. 받침 ‘ㄷ, ㅌ, ㅊ, ㅌ, ㅍ’에 동그라미를 그리고 그 발음이 같은지 다른지 물어 본다.
- 받침이 ‘ㄷ, ㅌ, ㅊ, ㅌ, ㅍ’인 경우 받침소리가 똑같이 ‘ㄷ’으로 발음된다는 사실을 알려 준다.
- 받침소리 ‘ㄷ’을 발음할 때 혀의 끝부분이 윗니 뒤쪽의 잇몸에 올라가 붙어 있는 모습을 손이나 그림으로 표현해 주어 발음이 끝날 때까지 그 상태를 유지하도록 알려 준다.
- 2-3회 반복하여 따라 읽는 연습을 하게 한다.

6. 받침소리 ‘ㄹ’에 대해 설명해 준다.

- ‘달, 물, 실’을 발음해 주고 따라 읽게 한다. 받침 ‘ㄹ’에 동그라미를 그린다.
- 받침소리 ‘ㄹ’을 발음할 때 혀의 앞쪽 윗면이 윗니 뒤쪽의 잇몸에 올라가 붙어 있는 모습을 손이나 그림으로 표현해 주어 발음이 끝날 때까지 그 상태를 유지하도록 알려 준다.
- 2-3회 반복하여 따라 읽는 연습을 하게 한다.

7. 받침소리 ‘ㅁ’에 대해 설명해 준다.

- ‘밤, 마음, 힘’을 발음해 주고 따라 읽게 한다. 받침 ‘ㅁ’에 동그라미를 그린다.

- 받침소리 ‘ㄹ’을 발음할 때 두 입술을 다물고 벌리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 준다.
 - 2-3회 반복하여 따라 읽는 연습을 하게 한다.
8. 받침소리 ‘ㄴ’에 대해 설명해 준다.
- ‘집, 입, 앞’을 발음해 주고 따라 읽게 한다. 받침 ‘ㄴ, ㅍ’에 동그라미를 그리고 그 발음 같은지 다른지 물어 본다.
 - 받침이 ‘ㄴ, ㅍ’인 경우 받침소리가 똑같이 ‘ㄴ’으로 발음된다는 사실을 알려 준다.
 - 받침소리 ‘ㄴ’을 발음할 때 두 입술을 다물고 벌리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 준다.
 - 2-3회 반복하여 따라 읽는 연습을 하게 한다.
9. 받침소리 ‘ㅇ’에 대해 설명해 준다.
- ‘공, 상, 빵’을 발음해 주고 따라 읽게 한다. 받침 ‘ㅇ’에 동그라미를 그린다.
 - 받침소리 ‘ㅇ’을 발음할 때 혀의 뒷부분이 부드러운 입천장에 올라가 붙어 있는 모습을 손이나 그림으로 표현해 주어 발음이 끝날 때까지 그 상태를 유지하도록 알려 준다.
 - 2-3회 반복하여 따라 읽는 연습을 하게 한다.
 - 모음의 음절을 적을 때 앞에 쓴 ‘ㅇ’은 자음이 없다는 의미이므로 받침소리 ‘ㅇ’과 다르다는 것을 알려 줄 수 있다.
10. 교재 30쪽의 ㉔를 이용하여 받침이 포함된 단어를 읽고 써 보는 연습을 하게 한다.
- 학생들이 먼저 단어를 읽어 보게 한다.
 - 시디(CD)를 듣고 정확하게 읽었는지 확인한 뒤, 교사가 먼저 읽고 따라 읽는 연습을 반복한다.
 - 학생들이 각자 단어를 읽고 써 보게 하고, 교사는 돌아다니면서 학생들에게 단어를 읽어 보게 한 후 정확하게 발음하고 있는지 개별적으로 확인한다.
11. 받침이 있는 자모 카드만 보여 주고 해당 글자를 발음해 보게 한다.
- 교사는 자모 카드를 교재의 받침 제시 순서대로 들어 학생들에게 읽게 한 뒤, 학생들이 대답하면 정확한 발음을 다시 들려준다. 다음으로 교사는 자모 카드를 순서에 상관없이 제시하여 학생들에게 읽게 하는 연습을 추가로 할 수 있다.
12. <활동 12>를 이용하여 지금까지 학습한 받침을 연습할 수 있도록 받침이 있는 단어를 읽고 쓰는 연습을 하게 한다.
- 교사는 <활동 12>에 제시된 단어를 활용하여 단어 카드를 직접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음절 1’에서 소개한 ‘단어 카드 제작 및 수업 활용 방법’의 1번 참고)
 - 교사는 전체 학생을 향하여 단어 카드를 보여 주며 교사의 발음을 듣고 따라 읽게 한다. 이 과정은 필요에 따라 반복할 수 있다.
 - 교사는 단어 카드를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고 짝 활동을 하게 한다.(‘음절 1’에서 소개한 ‘단어 카드 제작 및 수업 활용 방법’의 2번 참고)
 - 짝 활동을 통해 단어의 발음에 익숙해지면 학생들에게 각자 <활동 12>의 단어를 소리 내어 읽으면서 쓰게 한다.
 - 쓰기 연습이 끝나면 단어 카드를 활용해 교사가 단어를 불러 주고 학생이 빠르게 단어 카드를 들어 올리는 게임을 진행할 수 있다.(‘음절 1’에서 소개한 ‘단어 카드 제작 및 수업 활용 방법’의 3번 참고)
13. <활동 13>을 이용하여 지금까지 학습한 받침을 다시 한 번 연습할 수 있도록 받침이 있는 단어를 읽고 쓰는 연습을 하게 한다.
- 위와 같이 단어 카드 제시, 짝 활동, 쓰기 연습, 게임의 순서로 수업을 진행한다.
 - <활동 12, 13>을 마무리한 뒤 교사는 학생들에게 단어를 들려주고 공책에 쓰게 하는 받아쓰기 활동을 추가로 할 수 있다.
14. 누리-세종학당의 한글자모학습 영상 가운데 해당하는 부분을 이용하여 추가로 연습하도록 할 수 있다.

➡ 《한글자모학습》 8차시. 종성, 9차시. 종성의 발음
> 원리, 조합하기, 연습하기, 타자 연습, 평가하기

(2) 음절 3

받침이 있는 음절의 구성에 대해 이해하고, 발음을 듣고 그 발음에 해당하는 음절이나 단어를 찾는 연습을 한다.

1. '자음+모음+자음'의 결합으로 음절이 구성되는 경우를 설명해 준다.
 - 교재에 제시된 '한국'을 보고 '한'의 'ㄴ' 받침과 '국'의 'ㄱ' 받침이 어디에 쓰여 있는지 물어 본다.
 - 받침은 '자음+모음'으로 이루어진 음절 아래에 쓴다는 사실을 알려 준다.
 - '한'의 'ㄴ'을 손으로 가리고 '하'만 발음한 뒤, 손을 떼고 '한'을 보여 주면서 따라 읽게 한다.
 - '국'도 마찬가지로 방법으로 따라 읽게 한다.
 - 음절의 구성 방법을 알려 주기 위해 제시된 '한국'을 함께 읽고 그 의미를 알려 준다.
2. 교재 31쪽의 ①을 이용하여 받침이 포함된 단어를 듣고 그 해당하는 단어를 찾는 연습을 하게 한다.
 - 문제의 지시문을 읽어 준 뒤, 시디(CD)를 듣고 ①번 문제를 같이 풀어 본다.
 - 시디(CD)를 듣고 ②-⑩번 문제를 풀게 한다.
 - 시디(CD)를 한 번 더 듣고 답을 수정할 기회를 준다.
 - 교사가 정답을 확인해 준다.
 - 제시된 음절이나 단어를 교사가 먼저 읽고 따라 읽게 한다.
 - 교재에 제시된 듣기 문제 외에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받침소리의 구별 연습을 추가로 할 수 있다.
3. 누리-세종학당의 한글자모학습 영상 가운데 해당하는 부분을 이용하여 추가로 연습하도록 할 수 있다.

▶ 《한글자모학습》 8차시. 종성, 9차시. 종성의 발음
> 원리, 조합하기, 연습하기, 타자 연습, 평가하기

▶ '연습'의 정답은 교재 172쪽 참고

2. 한글 자모 4) 종합 연습

● **개요:** 지금까지 배운 한글 자모를 바탕으로 단어를 듣고 찾을 수 있고, 자신의 이름, 살고 있는 나라와 도시의 이름을 한글로 쓸 수 있다.

1. 교재 32쪽의 ①을 이용하여 단어를 듣고 그 해당하는 단어를 찾는 연습을 하게 한다.
 - 문제의 지시문을 읽어 준 뒤, 시디(CD)를 듣고 ①번 문제를 같이 풀어 본다.
 - 시디(CD)를 듣고 ②-⑩번 문제를 풀게 한다.
 - 시디(CD)를 한 번 더 듣고 답을 수정할 기회를 준다.
 - 교사가 정답을 확인해 준다.
 - 제시된 단어를 교사가 먼저 읽고 따라 읽게 한다.
2. 교재 32쪽의 ②를 이용하여 자신의 이름, 나라 이름, 도시 이름을 한글로 써 보는 연습을 하게 한다.
 - 학생 가운데 한 명을 지목하여 그 학생의 이름을 모든 사람이 써 보게 한다.
 - 두세 학생을 지목하여 자신이 쓴 것을 앞에 나와 칠판에 적게 한다.
 - 다른 학생이 쓴 것과 자신이 쓴 것이 같은지 확인한다.
 - 다르다면 어떻게 쓰는 것이 좋은지 서로 이야기해 보게 한다.
 - 미리 준비한 종이를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고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 써서 자신의 책상에 붙여 보게 한다.

- 나라 이름과 도시 이름에 대해서도 이와 비슷한 과정으로 진행한다.
3. 실제적인 자료를 이용하여 한글을 읽어보는 연습을 할 수 있다.
- 교사는 동포 신문의 기사 제목이나 광고지, 한국의 거리에서 볼 수 있는 간판 사진(인터넷 등에서 검색) 등을 준비해 와서 학생들에게 한글을 읽게 한다.
 - 실제적인 자료에 등장하는 단어들 중에서 받침이 있는 음절 다음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음절이 이어지는 단어를 몇 가지 골라 연음에 대해 설명해 줄 수 있다. 이를 통해 다음 시간에 학습할 '유용한 표현'에서 보다 자연스럽게 한국어 문장을 읽을 수 있게 한다.

3. 유용한 표현

- **개요:** 간단한 인사말과 교실 표현을 한국어로 할 수 있다.



(1) 인사말

한국어로 간단한 인사말을 연습한다.

1. 학생들에게 한국어 인사 표현에 대해 아는 것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여 인사말에 대한 학습을 시작하기 전에 학생들이 알고 있는 것을 환기시킨다.
2. 교재 33쪽에 제시된 그림을 보며 한국어 인사말에 대한 상황을 확인하게 한다.
 - 학교에서 선생님을 만나면 뭐라고 인사하는지 물어 본다.
 - 본격적인 한국어 학습이 시작되기 전이므로, 학생의 모국어를 사용해 묻고 답할 수 있다.
 - 한국어 인사말을 모르는 학생들은 교사의 질문을 듣고 교재의 그림에 맞는 해당 표현을 찾아 읽을 수 있다.
3. 인사말을 제시한다.
 - 학생의 대답을 듣고 목표 표현을 칠판에 쓴다.
4. 인사말을 따라 읽게 한다.
 - 칠판에 제시된 표현을 가리키며 교사가 먼저 읽고 학생들이 2-3번씩 따라 읽게 한다.
 - 인사말을 하면서 인사말에 어울리는 행동을 함께 하게 한다.
5. CD를 들으면서 한 문장씩 따라 읽게 하거나 교사가 먼저 읽고 따라 읽게 한다. 이 과정에서 인사말을 암기하게 한다.
6. 교사가 상황을 제시하거나 행동을 보여 주면 학생은 적절한 인사말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게 한다.
 - 먼저 전체 학생이 대답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학생 개인이 대답하게 한다.
 - 교사의 상황 설명이나 행동을 보고 적절한 인사말이 적힌 단어 카드를 찾는 활동을 할 수 있다.
 - 누리-세종학당의 '디지털 교육 자료관'에서 인사말 단어 카드를 내려받을 수 있다.
7. CD를 들으면서 인사말을 듣고 써 보게 한다.
8. 두세 명의 학생이 하나의 그룹이 되어 교사가 제시하는 상황을 듣고 역할을 나눠 인사를 하게 한다.



(2) 교실 표현

교실에서 사용하는 한국어 표현을 이해하고 말하는 연습을 한다.

1. 교사가 시범 동작을 보이며 해당 표현을 이야기해 준다.
 - 교사는 표현에 어울리는 동작을 하여 학생들의 이해를 돕는다. 예를 들어, 한 손을 귀에 갖다 대는 동작을 하며 '잘 들으세요.'를 말해 줄 수 있다.
 - 교사는 해당 동작과 표현을 여러 번 반복하여 보여 주고 이야기해 준다.
2. 교재 34, 35쪽에 제시된 그림을 보며 한국어 교실 표현에 대한 상황을 확인하게 한다.
3. 교실 표현을 칠판에 쓴다.
4. 교실 표현을 따라 읽게 한다.
 - 칠판에 제시된 표현을 가리키며 교사가 먼저 읽고 학생들이 2-3번씩 따라 읽게 한다.
 - 교사는 관련 행동도 함께 보여 준다.
5. CD를 들으면서 하나씩 따라 읽게 하거나 교사가 먼저 읽고 따라 읽게 한다. 이 과정에서 교실 표현을 암기하게 한다.
6. 교사가 교실 표현을 이야기하면 학생들이 듣고 적절하게 반응하게 한다.
 - 먼저 전체 학생이 반응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학생 개인이 반응하게 한다.
 - 교실 표현이 적힌 단어 카드를 보며 활동을 할 수 있다.
 - 누리-세종학당의 '디지털 교육 자료관'에서 교실 표현 단어 카드를 내려받을 수 있다.
 - 학생들을 두세 그룹으로 나누어 게임을 할 수 있다. 한 그룹씩 일어서거나 교실 앞에 나와서 교사의 교실 표현을 듣고 적절한 행동을 하게 한다. 한 명이라도 잘못된 학생이 있는 그룹이 진다.
7. 인사말과 교실 표현에 대한 질문이 있는지 확인하고 수업을 마무리한다.

예비편 마무리

◎ **개요:** 지금까지 한글 자모와 음절을 읽고 쓰는 법을 배우고 간단한 인사말과 교실 표현을 익히는 활동을 했음을 상기시키고 학습 성취도를 확인한다.

1. 교사의 질문을 통해 단원의 학습 성취 정도를 확인한다.
2. 숙제를 내 주고 다음 수업 내용에 대해 안내해 준다.

● 다음을 읽고 쓰세요.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 다음을 읽고 쓰세요.

ㄱ			가			
ㄴ			나			
ㄷ			다			
ㄹ			라			
ㅁ			마			
ㅂ			바			
ㅅ			사			
ㅇ			아			
ㅈ			자			
ㅊ			차			
ㅋ			카			
ㅌ			타			
ㅍ			파			
ㅎ			하			

● 다음을 읽고 쓰세요.

아						
야						
어						
여						
우						
요						
유						
유						
이						
이						

◎ 다음을 읽고 쓰세요.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 단어를 읽고 쓰세요.

오						
이						
아이						
여우						
오이						
우유						

● 단어를 읽고 쓰세요.

아기						
가구						
고기						
나라						
구두						
다리						
나무						
머리						
비누						
오리						

● 단어를 읽고 쓰세요.

사자						
바지						
허리						
모자						
여자						
주스						
기차						
코						
피자						
포도						
기타						

● 다음을 읽고 쓰세요.

ㅈ			애			
ㅊ			얘			
ㅋ			에			
ㆁ			예			
ㄴ			와			
ㄷ			왜			
ㄹ			외			
ㄱ			위			
ㆁ			웨			
ㄱ			위			
ㄴ			의			

1. 다음을 읽고 쓰세요.

ㄱ			까			
ㄷ			따			
ㅂ			빠			
ㅅ			싸			
ㅈ			짜			

2. 다음을 읽고 쓰세요.

가			까			카		
다			따			타		
바			빠			파		
사			싸			*		
자			짜			차		

● 단어를 읽고 쓰세요.

개						
얘기						
시계						
사과						
배						
회사						
돼지						
가위						
베개						
뒤						
의자						

● 단어를 읽고 쓰세요.

토끼						
어깨						
아빠						
꼬리						
쓰다						
뛰다						
찌다						
아저씨						
짜다						
어때요						
예쁘다						

● 단어를 읽고 쓰세요.

학교						
밖						
눈						
듣다						
달						
밤						
집						
빵						
낮						
끝						

● 단어를 읽고 쓰세요.

수박						
산						
물						
있다						
입						
앞						
옷						
방						
꽃						
부엌						

2) 「세종한국어 3」 본 단원

제1과 직업

학습 목표

사람들의 직업과 하는 일에 대해 듣고 말할 수 있다.
친구에게 새로운 사람을 소개하는 글을 읽고 쓸 수 있다.

단원 내용

1. 과제

- 사람들의 직업과 하는 일에 대해 듣고 이해하기
- 자신의 직업과 하는 일을 이야기하기
- 다른 사람을 소개하는 짧은 글을 읽고 이해하기
- 자신의 친구를 소개하는 글 쓰기

2. 문법

- 이/가 아니다
- -는

3. 어휘

- 직업
- 하는 일

4. 발음

- [ㅂ] + ㄴ → [ㅃ] + ㄴ

수업 개요

구분	내용	교육 활동	준비물	소요 시간
도입	주제 제시 및 학습 동기 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재의 사진과 제시된 질문을 이용해 주제 도입하기 • 단원의 주제 및 학습 목표 제시하기 		5분
대화 1	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과 관련된 대화를 도입하기 • 대화 듣고 내용 확인하기 	• 시디(CD)	10분
	어휘와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비 및 어휘 의미 설명하기 • 연습 및 확인하기 		15분
	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비 및 문법 설명하기 • 교재 예문 학습하기 	• 단어 카드	30분
	연습 1,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습 활동의 내용 및 유형 확인하기 • 대화 완성하기 및 확인하기 	• 활동 1	30~40분
	마무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화 완성하기 및 복습하기 	• 활동 2	5분
대화 2	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는 일과 관련된 대화를 도입하기 • 대화 듣고 내용 확인하기 	• 시디(CD)	10분
	어휘와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비 및 어휘 의미 설명하기 • 연습 및 확인하기 		15분
	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비 및 문법 설명하기 • 교재 예문 학습하기 	• 단어 카드	30분
	연습 1,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습 활동의 내용 및 유형 확인하기 • 대화 완성하기 및 확인하기 	• 활동 3	30~40분
	마무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화 완성하기 및 복습하기 	• 활동 4	5분

구분	내용	교육 활동	준비물	소요 시간
듣고 말하기	듣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 제시하기 • 듣는 목적 파악하고 내용 확인하기 	• 시디(CD)	30분
	말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화 상황 제시하기 • 직업과 하는 일에 대해 이야기하기 	• 활동 5	40~50분
	발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음 항목 제시하기 • 반복 연습하기 및 확인하기 	• 단어 카드	10분
읽고 쓰기	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예측하기 • 읽는 목적 파악하고 내용 확인하기 		40분
	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쓰기 주제 제시하기 • 쓸 내용에 대해 생각해 보기 • 친구를 소개하는 글 쓰기 • 다른 사람의 글 읽고 이야기하기 		50~60분
단원 마무리	학습 내용 정리 및 학습 성취도에 대한 자기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 어휘와 표현 확인 및 학습 내용 정리하기 • 학습 성취에 대해 자기 평가 수행하기 		5분

도입

- **개요:** 교재 12쪽의 사진을 이용해 주제를 도입한다. '직업'과 관련된 질문을 통해 학생들이 단원의 내용을 예측하고 학습을 준비하도록 한다.

1. 학생들에게 교재의 사진을 보게 한다.

- 교재의 사진을 보면서 어떤 상황인지 생각해 보도록 한다.

2. 사진에 대해 묻고 답한다.

- 교재 12쪽에 나온 사진을 보면서 두 사람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학생에게 질문함으로써 '직업'이라는 주제에 자연스럽게 노출시킨다. 다음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다.



교사: 두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학생: 도서관요./사무실요.

교사: 무엇을 하고 있어요?

학생: 공부를 하고 있어요./컴퓨터를 하고 있어요.

교사: 이 사람들의 직업은 무엇일까요?

학생: 학생이에요./회사원이예요.

3. 학습 목표 및 내용을 제시한다.

- 이 단원은 '직업'과 관련된 내용임을 알려 준다. 교사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면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교사: 오늘은 직업과 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대화 1

- ◎ **개요:** '대화' 학습은 내용 파악에 중점을 두고, 이후 '어휘와 표현', '문법' 학습을 통해 대화 수행에 필요한 언어 학습을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통해서 배운 내용을 정리한다.

대화

직업을 묻고 대답하는 대화를 제시한다.

1. **대화 상황과 관련된 질문을 통해서 대화 내용을 도입한다.**
 - 이 '대화'는 본 단원에서 학습할 어휘와 문법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수업 시간에는 모르는 표현이나 문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대화'의 대략적인 내용을 이해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 대화 상황을 이해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다.



교사: 투이 씨가 민수 씨에게 아피아 씨를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친구를 처음 만날 때 무엇을 물어봐요?

학생: 이름이 뭐예요?/어느 나라에서 왔어요?/직업이 뭐예요?

2. 책을 보지 않고 시디(CD)를 듣게 한다.
3. 시디(CD)를 들은 후에 다음과 같이 간단한 질문을 통하여 대화 내용을 대략적으로 이해했는지 확인한다.



교사: 아피아 씨 직업이 뭐예요? 민수 씨는 무슨 일을 해요?

어휘와 표현

여러 가지 직업에 대한 어휘와 표현을 학습시킨다.

1. 준비

- ① 학습 목표가 되는 '어휘와 표현' 중 몇 가지를 활용하여 도입한다.



교사: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고 싶어요?

- ② 교사와 학생의 대화가 마무리되면 교재에 제시된 어휘 중 알고 있는 표현에 ✓표를 하게 한다.

2. 제시 및 설명

- ① 교재에 제시된 목표 어휘와 표현을 칠판에 적는다.
 - 학생이 알고 있는 표현을 중심으로 먼저 질문하고 대답을 들은 뒤 칠판에 쓴다.
 - 교재에 나온 어휘 중 아직 언급되지 않았던 것들과 학생들이 모르는 것들을 추가로 제시한다. 이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다.



교사: 오늘은 여러 가지 직업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아파서 병원에 가면 누구를 만나요?

학생: 의사요./간호사요.

교사: 여러분이 아플 때 약은 누구에게 받아요?

학생: 의사 선생님?

교사: 약은 약국에서 사요. 약국에서 일하는 사람을 '약사'라고 해요. 14쪽에 또 어떤 직업들이 있지요?

학생: 사업가?

교사: 네. 그럼 칠판에 쓸게요. 그리고 설명할게요.

② 칠판에 제시된 어휘와 표현의 의미를 학습시킨다.



교사: 사업가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일까요? 자신이 회사를 만들어서 자신의 일을 하는 사람을 사업가라고 해요.

3. 연습 및 확인

① 목표 어휘와 표현을 따라 읽힌다.

- 학습한 어휘를 교사가 먼저 읽고 학생들이 따라 읽게 한다.
- 2-3번 반복하여 학생들이 어휘와 표현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한다.

② 목표 어휘와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연습 활동을 하게 한다.

- 학생 한 명은 학습한 어휘와 표현의 의미를 한국어로 제시하고 다른 학생은 그것을 가리키는 어휘와 표현이 무엇인지 한국어로 답하게 한다.
- 이를 통해 학생들이 학습한 어휘의 의미를 확실히 알고 있는지 확인한다.

③ 교재 어휘와 표현을 다시 읽게 한다.

-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어휘를 자연스럽게 익히도록 한다.

문법

명사 뒤에 붙어서 명사를 부정할 때 사용하는 문법 '이/가 아니다'를 교육한다.

1. 준비

① 질문을 통해 상황을 도입한다.

② 교사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다. 다음에 제시한 교사의 발화는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다.



교사: 여러분 직업은 뭐예요?

학생: 학생이에요.

교사: 그러면 저도 학생이에요?

학생: 아니요. 선생님이예요.

교사: 네, 저는 학생이 아니예요. 선생님이예요.

2. 제시 및 설명

① 다음 문법 설명을 바탕으로 목표 문법을 설명한다.

문법 설명 이/가 아니다

‘이/가 아니다’는 명사 뒤에 붙어서 ‘명사+이다’를 부정함을 나타낸다. 앞에 오는 명사가 자음으로 끝나면 ‘이’를 쓰고, 모음으로 끝나면 ‘가’를 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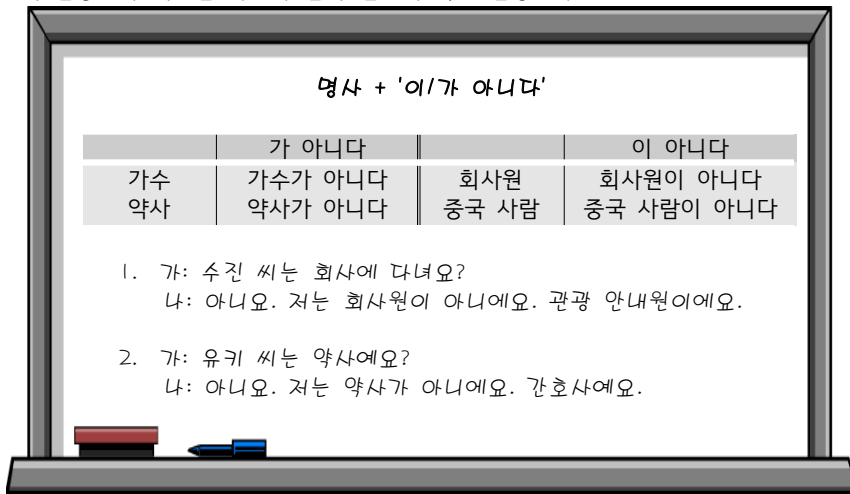
- 예 1) 저는 회사원이 아니에요. 관광 안내원이에요.
- 예 2) 저는 약사가 아니에요. 간호사예요.

참고

철자에 주의하도록 한다.

- 예) 아니예요(×), 아니예요(○)

② 문법의 활용표와 예문을 다음과 같이 칠판에 적고 설명한다.



③ 단어 카드를 사용하여 교체 연습을 한다.

- 칠판 안에 제시된 단어를 카드에 적어서 단어 카드를 만든다.
- 카드를 하나씩 들어서 학생들에게 보여 주고 목표 문법을 사용해서 바꾸어 말하게 한다.

④ 교재의 예문을 확인한다.

- 교사가 예문을 먼저 읽고 학생들이 2-3번씩 따라 읽도록 한다.
- 이 과정에서 문법 설명을 이해하고 확인하도록 한다.

3. 정리

-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하여 문법 학습 정도를 확인한다.



교사: (학생 한 명을 가리키며) OO 씨는 영화배우예요? (책상을 가리키며) 이것은 의자예요?

연습

‘연습 1’에서는 14쪽에 있는 ‘어휘와 표현’, ‘문법’을 활용해서 대화를 만들도록 한다. ‘연습 2’에서는 친구들의 직업에 대하여 묻고 답하는 활동을 하게 한다. 연습은 <활동 1>의 1, ‘연습 1’, <활동 1>의 2, ‘연습 2’의 순서로 진행한다.

1. 교재의 ‘연습 1’을 공부하기 전에 <활동 1>의 1번을 활용하여 문법을 간단하게 연습하게 한다.
 - <활동 1>의 1번의 지시문을 읽어 주고 <보기>처럼 맞은 것을 골라 문장을 완성하게 한다.
 - <보기>의 문장을 소리 내어 읽어 본 뒤 짝 활동으로 문제를 읽어 보며 문제를 풀어 본다.
 - 교사와 함께 답을 확인한다.

<활동 1> 1번 정답

1) 가 2) 이 3) 가 4) 이 5) 가

2. ‘연습 1’에서는 ‘대화’에서 학습한 어휘와 문법을 사용하여 대화를 완성하게 한다.
 - 문제의 지시문을 읽어 주고 1)번 문제와 답을 함께 읽게 한다.
 - 2)-4)번 문제의 경우 두 사람이 짝이 되어 1)번과 같은 말하기 활동을 하게 한다.
 - 빈칸에 문제의 답을 쓰도록 한 뒤 교사와 함께 답을 확인하거나 발표하게 한다.
 - 앞에서 배운 어휘와 표현, 문법을 활용한 연습 문제이므로 학생들로부터 질문이 없으면 별도의 설명을 하지 않는다.

➡ ‘연습 1’의 정답은 교재 178쪽 참고

3. <활동 1>의 2번을 활용하여 활동하게 한다.
 - 표를 보고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 활동임을 알려 주고, 표의 어휘 중 모르는 단어를 설명한다.
 - <보기>의 대화를 읽고 주어진 정보로 어떻게 대화를 만드는지 알려 준다. 한 사람은 오른쪽 표를 가려서 왼쪽 표만 보고 다른 한 사람은 왼쪽 표를 가려서 오른쪽 표만 보면서 서로 모르는 정보를 찾도록 하게 한다.
 - 두 사람이 짝이 되어 짝 활동을 하면서 대화를 만들어 보게 한다.
 - 대화를 만든 후 정확하게 만들었는지 돌아가면서 대화를 말해 보게 한다.
 - 틀린 부분을 교사가 다시 알려 준다.
4. ‘연습 2’에서는 학습한 내용을 활용하여 친구들의 직업에 대해 이야기하게 한다.
 - 학생 3-4명이 한 조가 되게 구성하고 서로의 직업을 묻고 답하게 하되, ‘어휘와 표현’ 및 ‘문법’에서 배운 학습 내용을 활용하도록 한다.
 - 먼저 ‘연습 2’의 지시문을 읽고 예시 대화를 같이 읽어 본다. 몇 명의 학생에게 질문을 해 보고 다른 학생들에게도 서로 질문하고 답해 보게 한다. 그 다음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한 조를 지정하여 발표하게 한다.

마무리

<활동 2>를 활용하여 ‘대화’와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지 확인하며 마무리한다.

1. 시디(CD)를 들으면서 한 문장씩 따라 읽히거나 교사가 먼저 읽고 따라 읽힌다.
2. <활동 2>를 활용하여 역할극 형식의 말하기 활동을 할 수 있다.
 - <활동 2>에 제시된 그림은 ‘대화’의 전체 상황을 보여 주는 그림이다. 그림 아래에 있는 말풍선에는 ‘대화’의 키워드가 제시되어 있다. 말풍선 안에 들어가는 문장이 여러 개인 경우 ‘•’ 기호를 통해 구분을 하였고, 대화 내용을 그대로 말하는 경우 큰따옴표로 표시했다.

대화 2

- ◎ **개요:** '대화' 학습은 내용 파악에 중점을 두고, 이후 '어휘와 표현', '문법' 학습을 통해 대화 수행에 필요한 언어 학습을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통해서 배운 내용을 정리한다.

대화

자기소개를 하는 대화를 제시한다.

1. **대화 상황과 관련된 질문을 통해서 대화 내용을 도입한다.**
 - 이 '대화'는 본 단원에서 학습할 어휘와 문법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수업 시간에는 모르는 표현이나 문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대화'의 대략적인 내용을 이해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 대화 상황을 이해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다.



교사: 민수 씨가 카오 씨를 소개하고 카오 씨는 자기소개를 할 거예요. 여러분은 자기소개를 할 때 어떤 것을 이야기해요?

학생: 이름, 직업, 나이, 가족…….

2. 책을 보지 않고 시디(CD)를 듣게 한다.
3. 시디(CD)를 들은 후에 다음과 같이 간단한 질문을 통하여 대화 내용을 대략적으로 이해했는지 확인한다.



교사: 카오 씨 직업이 뭐예요? 무엇을 공부하고 있어요? 대학교를 졸업하면 무엇을 하고 싶어 해요? 10년 후에는요?

어휘와 표현

직업과 하는 일을 자세히 이야기하는 데 필요한 어휘와 표현을 학습시킨다.

1. 준비

- ① 학습 목표가 되는 '어휘와 표현' 중 몇 가지를 활용하여 도입한다.



교사: OO 씨, 직업이 뭐예요?

학생: 요리사예요.

교사: OO 씨는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해요?

학생: 한국 식당에서 한국 음식을 만들어요.

- ② 교사와 학생의 대화가 마무리되면 교재에 제시된 어휘 중 알고 있는 표현에 ✓표를 하게 한다.

2. 제시 및 설명

- ① 교재에 제시된 목표 어휘와 표현을 칠판에 적는다.
 - 학생이 알고 있는 표현을 중심으로 먼저 질문하고 대답을 들은 뒤 칠판에 쓴다.
 - 교재에 나온 어휘 중 아직 언급되지 않았던 것들과 학생들이 모르는 것들을 추가로 제시한다. 이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다.



교사: 회사원은 매일 어디에 가서 일해요?

학생: 회사에 가서 일해요.

교사: 네. 회사원은 회사에 다녀요. 그러면 은행원은요?

학생: 은행원은 은행에 다녀요.

교사: (대학생인 학생을 가리키며) OO 씨, 대학생이죠? 전공이 뭐예요?

학생: 저는 대학교에서 교육학을 전공하고 있어요.

② 칠판에 제시된 어휘와 표현의 의미를 학습시킨다.



교사: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전공하다'는 무슨 뜻이에요?

학생: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공부해요?

교사: 네. 대학교에 들어갈 때 자신이 깊이 많이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을 정해요. 대학교에서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한국어에 대해서 많이 공부했어요.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전공했어요.'라고 말해요.

3. 연습 및 확인

① 목표 어휘와 표현을 따라 읽힌다.

- 학습한 어휘를 교사가 먼저 읽고 학생들이 따라 읽게 한다.
- 2-3번 반복하여 학생들이 어휘와 표현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한다.

② 목표 어휘와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연습 활동을 하게 한다.

- 짝 활동으로 자신을 포함해 가족, 친구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학습한 어휘를 사용하여 묻고 답하면서 배운 어휘를 사용하는 연습을 하도록 한다.
- 이를 통해 학생들이 학습한 어휘의 의미를 확실히 알고 있는지 확인한다.

③ 교재 어휘와 표현을 다시 읽게 한다.

-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어휘를 자연스럽게 익히도록 한다.

문법

명사 앞에 쓰여서 사건이나 행위가 현재 일어남을 이야기하는 문법 '-는'을 교육한다.

1. 준비

① 질문을 통해 상황을 도입한다.

② 교사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다. 다음에 제시한 교사의 발화는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다.



교사: 여러분 직업은 뭐예요?

학생: 학생이에요.

교사: 어디에서 한국어를 공부해요?

학생: 세종학당에서 공부해요.

교사: 여러분은 세종학당에서 공부해요. 세종학당에서 공부하는 학생이에요.

2. 제시 및 설명

① 다음 문법 설명을 바탕으로 목표 문법을 설명한다.

문법 설명 -는

동사 뒤에 붙어서 그 뒤에 오는 명사를 수식하고 그 사건이나 행위가 현재 일어남을 나타낸다.

예 1) 저는 한국 회사에 다니는 김철수입니다.
 예 2) 저는 어제 이사하는 친구를 도와주었어요.

참고

- 모국어에 따라서 수식하는 동사가 뒤에 오는 경우가 있어 학생들이 오류를 많이 범한다. 따라서 수식하는 동사가 명사 앞에 나옴을 강조한다.
 예) 좋아하는 음식(○), 음식 좋아하는(X)
-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2 157쪽, 초급 한국어 읽기 9과, 초급 한국어 쓰기 16과 참고

② 문법의 활용표와 예문을 다음과 같이 칠판에 적고 설명한다.

동사 + '-는'

	-는		-는
가다	가는	듣다	듣는
먹다	먹는	좁다	좁는
만들다	만드는	고르다	고르는
		짓다	짓는

1. 가: 저는 한국 회사에 다니는 김철수입니다.
 나: 아, 네. 반갑습니다.

2. 가: 어제 뭐 했어요?
 나: 저는 어제 이사하는 친구를 도와주었어요.

③ 단어 카드를 사용하여 교체 연습을 한다.

- 칠판 안에 제시된 단어를 카드에 적어서 단어 카드를 만든다.
- 카드를 하나씩 들어서 학생들에게 보여 주고 목표 문법을 사용해서 바꾸어 말하게 한다.

④ 교재의 예문을 확인한다.

- 교사가 예문을 먼저 읽고 학생들이 2-3번씩 따라 읽도록 한다.
- 이 과정에서 문법 설명을 이해하고 확인하도록 한다.

3. 정리

-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하여 문법 학습 정도를 확인한다.



교사: 여러분이 요즘 공부하는 것은 뭐예요?

학생: 요즘 공부하는 것은 한국어예요.

연습

‘연습 1’에서는 16쪽에 있는 ‘어휘와 표현’, ‘문법’을 활용해서 대화를 만들도록 한다. ‘연습 2’에서는 우리 반 친구들이 하는 일에 대하여 묻고 답하는 활동을 하게 한다. 연습은 <활동 3>의 1, ‘연습 1’, <활동 3>의 2, ‘연습 2’의 순서로 진행한다.

1. 교재의 ‘연습 1’을 공부하기 전에 <활동 3>의 1번을 활용하여 문법을 간단하게 연습하게 한다.
 - <활동 3>의 1번의 지시문을 읽어 주고 <보기>처럼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한다.
 - <보기>의 문장을 소리 내어 읽어 본 뒤, 각자 문제를 풀어 보고 두 사람이 같이 만든 문장을 읽어 본다.
 - 교사와 함께 답을 확인한다.

<활동 3> 1번 정답

- 1) 카오 씨는 그림을 그리는 화가입니다
- 2) 쏘카 씨는 음식을 만드는 요리사입니다
- 3) 흐영 씨는 영어를 공부하는 대학생입니다
- 4) 유리 씨는 한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 5) 마이클 씨는 사진을 전공하는 대학원생입니다

2. ‘연습 1’에서는 대화에서 학습한 어휘와 문법을 사용하여 대화를 완성하게 한다.
 - 문제의 지시문을 읽어 주고 1)번 문제와 답을 함께 읽게 한다.
 - 2)-4)번 문제의 경우 두 사람이 짝이 되어 1)번과 같은 말하기 활동을 하게 한다.
 - 빈칸에 문제의 답을 쓰도록 한 뒤 교사와 함께 답을 확인하거나 발표하게 한다.
 - 앞에서 배운 어휘와 표현, 문법을 활용한 연습 문제이므로 학생들로부터 질문이 없으면 별도의 설명을 하지 않는다.

➡ ‘연습 1’의 정답은 교재 178쪽 참고

3. <활동 3>의 2번을 활용하여 활동하게 한다.
 - 표를 보고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 활동임을 알려 주고, 표의 어휘 중 모르는 단어를 설명한다.
 - <보기>의 대화를 읽고 주어진 정보로 어떻게 대화를 만드는지 알려 준다.
 - 두 사람이 짝이 되어 짝 활동을 하면서 대화를 만들어 보게 한다.
 - 대화를 만든 후 정확하게 만들었는지 돌아가면서 대화를 말해 보게 한다.
 - 틀린 부분을 교사가 다시 알려 준다.
4. ‘연습 2’에서는 학습한 내용을 활용하여 우리 반 친구들이 하는 일에 대해 친구에게 자유롭게 이야기하게 한다.
 - 학생 3-4명이 한 조가 되게 구성하고 우리 반 친구들이 하는 일을 묻고 답하게 하되, ‘어휘와 표현’ 및 ‘문법’에서 배운 학습 내용을 활용하도록 한다.
 - 먼저 ‘연습 2’의 지시문을 읽고 예시 대화를 같이 읽어 본다. 몇 명의 학생에게 질문을 해 보고 다른 학생들에게도 서로 질문하고 답해 보게 한다. 그 다음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한 조를 지정하여 발표하게 한다.

마무리

<활동 4>를 활용하여 ‘대화’와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지 확인하며 마무리한다.

1. 시디(CD)를 들으면서 한 문장씩 따라 읽히거나 교사가 먼저 읽고 따라 읽힌다.
2. <활동 4>를 활용하여 역할극 형식의 말하기 활동을 할 수 있다.
 - <활동 4>에 제시된 그림은 ‘대화’의 전체 상황을 보여 주는 그림이다. 그림 아래에 있는 말풍선에는 ‘대화’의 키워드가 제시되어 있다. 말풍선 안에 들어가는 문장이 여러 개인 경우 ‘•’ 기호를 통해 구분을 하였고, 대화 내용을 그대로 말하는 경우 큰따옴표로 표시했다.

듣고 말하기

- **개요:** 사람들의 직업과 하는 일에 대해 듣고 자신의 직업과 하는 일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대화' 중 주의해야 할 발음을 확인하고 연습하게 한다.

듣기

간단한 대화 듣기(1, 2번)를 한 후에 미래 계획에 대한 이야기(3번)를 듣고 내용을 이해하도록 한다. 듣기 1, 2번에서는 듣고 특정 정보를 파악하게 하고, 듣기 3번에서는 전체적인 맥락 및 세부 내용을 파악하게 한다.

1. **듣기 활동을 도입하고 준비시킨다.**
 - 듣기 활동의 지시문과 보기를 함께 읽고 어떤 활동을 해야 하는지 알려 준다.
 - 어떤 내용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하는지, 어떤 대화 상황이 나올 것인지 예측하게 한다.
2. **'듣기 1'의 시디(CD)를 들려주고 답을 찾게 한 후, 정답을 확인해 본다.**
 - 학생 스스로 답을 찾게 한 뒤 짝 활동으로 답을 확인하게 한다. 일치하지 않는 답이 있으면 표시하게 한 후 그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한다.
 - 다시 한 번 들으면서 교사가 정답을 확인해 주고 어떤 부분을 잘못 이해했는지 확인한다. 어려운 어휘나 표현을 점검한다.
3. **'듣기 2'의 시디(CD)를 들려주고 답을 찾게 한 후, 정답을 확인해 본다.**
 - 위의 과정을 반복한다.
4. **'듣기 3'의 시디(CD)를 들려주고 답을 찾게 한 후, 정답을 확인해 본다.**
 - 위의 과정을 반복한다.
 - 다음의 추가 질문을 통해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점검한다.



교사: 마리 씨는 왜 한국에 가고 싶어 해요?

학생: 한국 음식을 좋아해요. 한국에 가서 한국 요리를 배우고 싶어 해요.

5. **듣기 내용을 확인한다.**
 - 시디(CD)를 들으면서 한 문장씩 따라 읽게 하거나 교사 혹은 친구들과 나누어 읽게 한다.
 -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 받아쓰기를 하거나 듣기 대본을 외워서 대화해 보게 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 듣기 대본은 교재 170쪽, 듣기 정답은 교재 178쪽 참고

말하기

직업과 하는 일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한다.

1. **4번 지시문을 함께 읽으며 대화 상황을 제시하고 질문을 통해 도입한다.**
 - 다음의 질문을 제시한 후 이 질문들에 대답하기 위해서 어떤 어휘나 표현이 필요한지 학생에게 생각할 시간을 준 뒤 필요한 내용을 칠판에 정리한다.



교사: 여러분은 어떤 직업을 알고 있어요?

학생: 선생님, 학생, 의사, 간호사, 사업가…….

- 2명 또는 3-4명이 함께 자신의 직업과 하는 일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한다.
 - 짝 활동, 혹은 조 활동으로 직업과 하는 일에 대해 묻고 대답하게 한다.
 - 말하기 활동을 통해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활동 5>의 표를 완성하게 한다.
 - 교사는 돌아다니면서 학생들이 원활하게 말하기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지 점검한다.
 - 학생의 오류는 메모해 두었다가 말하기 활동이 끝난 후에 필요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설명한다.
3. 말하기 활동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 앞에서 친한 친구의 직업과 하는 일에 대해 발표하도록 한다.
 - 자신이 완성한 <활동 5>의 표를 보면서 친한 친구의 직업과 하는 일을 소개하도록 한다.
 - 학생의 발표가 다 끝난 다음에 발표를 하지 않은 학생이나 몇 명의 학생을 지정하여 어떤 직업과 하는 일이 가장 기억에 남았는지 메모한 것을 보며 이야기하게 한다.

발음

[비] 뒤에 'ㄴ'이 이어 나올 경우 [비]을 [ㅁ]으로 발음하는 비음화 현상에 대해 이해함으로써 이를 정확하게 발음하고 들을 수 있도록 교육한다.

1. 학습할 발음 항목에 대해 도입한다.
 - 교재 19쪽에 제시한 '십 년, 돕는, 재미없는'의 단어 카드를 제시하면서 학생이 읽어 보게 한다.
 - 교사는 학생들에게 정확한 발음을 들려준 뒤 따라하게 한다.
 - 이 과정을 통해 [비]이 [ㅁ]으로 발음됨을 가르쳐 주고 이와 관련된 발음 규칙을 배울 것임을 말해 준다.
2. 발음 규칙을 제시한다.
 - 발음 규칙을 간단하게 칠판에 적고 [비]이 'ㄴ' 앞에서 [ㅁ]으로 발음됨을 설명한다.
 - '재미없는'은 '없는>엄는>엄는' 등의 과정을 거쳐 발음됨을 설명한다.
 - 'ㄴ' 이외에 'ㄹ'이 올 때도 [비]이 [ㅁ]으로 발음됨을 알려 줌으로써 [ㅁ]과 [ㄴ]의 발음상의 공통점을 익힌다. (예1) 잡는/밥물, 예2) 앞니/앞마당, 예3) 없는/값만)
3. 해당 어휘와 문장을 중심으로 연습한다.
 - 교재 19쪽에 제시한 어휘를 이용해 발음 연습을 한다. 어휘 읽는 연습을 마친 후 문장 읽는 연습을 하게 한다.
 - 교재에서 제시한 것 이외에 추가적으로 어휘를 제시한다.

[비] + ㄴ → [ㅁ] + ㄴ	
월급날	1. 월급날이 언제예요?
앞니	2. 앞니가 부러졌어요.
없는	3. 자리가 없는 사람은 앞으로 나오세요.

- 칠판에 제시한 예시 어휘를 보면서 학생이 먼저 읽게 한 후 교사가 정확하게 읽고 다시 학생들이 따라 읽게 한다. 어휘 읽는 연습을 마친 후 문장 읽는 연습을 하게 한다.
4. 학습한 내용을 확인한다.
 - 교재의 '대화 1'과 '대화 2'의 내용 중 [비]이 [ㅁ]으로 발음되는 어휘가 포함된 문장을 찾아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다시 읽게 한다.
 - 교사는 학생들의 발음을 확인하며 필요한 경우 교정해 준다.

참고 사항

표준 발음법 제20항 받침 'ㄱ(ㄱ, ㅋ, ㆁ, ㄷ), ㄷ(ㅌ, ㅍ, ㅈ, ㅊ, ㅌ, ㅎ), 비(ㅍ, ㅓ, ㅕ, ㅖ)'은 'ㄴ, ㅁ' 앞에서 [ㅇ, ㄴ, ㅁ]으로 발음한다.
 잡는[잡는] 없는[엄는] 책 넣는[채넣는] 밥물[밥물] 앞마당[암마당]

읽고 쓰기

- ◎ **개요:** 다른 사람을 소개하는 짧은 글을 읽고 이해하고, 자신의 친구를 소개하는 글을 쓰게 한다.



읽기 1번에서는 인물 정보에 대한 글을 읽고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게 하고, 읽기 2번에서는 편지를 읽고 세부 내용을 파악하게 한다.

읽기 1

1. 필요한 사람 정보가 있을 때 어떻게 하는지 묻고 답하게 한다.
 - 교재 그림을 보고 언제 이러한 화면을 볼 수 있는지 이야기하게 한다. 다음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다.



교사: 여러분은 좋아하는 한국의 영화배우가 있어요?

학생: 네. 저는 000을/를 좋아해요.

교사: 000 씨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을 때 어떻게 해요?

학생: 인터넷을 해요.

교사: 네, 맞아요. '읽기 1'의 사진을 보세요. 누구에 대해 찾고 있어요?

학생: 장근석요.

교사: 오늘은 인터넷에 나와 있는 정보를 읽을 거예요.

2. 교재의 문제 지시문을 함께 읽고 무엇에 관한 내용인지 예측하게 한다.
 - 문제를 읽고 중요한 인물 정보에 집중하여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읽기 1'은 실제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데 역점을 둔다. 학생 수준에 맞지 않는 단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단어를 목표로 다루지 않는다.
3. 학생 스스로 내용을 파악하게 한 뒤 문제의 답을 찾게 한다. 답을 찾은 후 옆 사람과 답을 비교해 보게 한다.
4. 교사가 읽기 내용을 확인해 준다. 그리고 정답도 확인해 준다.
5. 읽기 내용 중 어려웠던 어휘나 표현, 이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질문을 받고 알려 준다.

읽기 2

1. 학생들에게 친구에 대해 질문을 하며 어떤 친구를 새로 사귀고 싶은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다.



교사: 여러분은 친구가 많아요?

학생: 네. 많이 있어요./아니요. 없어요.

교사: 여러분은 어떤 친구를 사귀고 싶어요?

학생: 한국말을 더 잘하고 싶어요. 그래서 한국 친구를 사귀고 싶어요.

2. '읽기 2'의 지시문을 함께 읽고 마크 씨가 투이 씨에게 왜 편지를 썼을지 추측해 보게 한다.
3. '읽기 2'를 전체적으로 한 번 훑어보게 한 후 마크 씨의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해 보게 한다. 그리고 글을 천천히 다시 소리 내어 읽으면서 질문에 해당하는 내용에 밑줄 긋게 한다. 학생 스스로 문제를 풀도록 하고 짝과 함께 답을 맞춰 본다.
4. 교사와 함께 전체적인 내용과 답을 확인하게 한다.

5. 교사는 학생들에게 읽는 내용에 대해 질문을 하여 다함께 이에 대해 대답해 보도록 한다. 이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읽기 내용을 최종 확인하게 한다.
 - ‘지난번’, ‘기억하다’, ‘수출하다’, ‘가요’, ‘드림’, ‘연주’, ‘잘 맞다’, ‘답장’ 등의 새 어휘를 알고 있는지 확인하고 설명해 준다.
 - 읽기 어려웠던 부분이나 모르는 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받고 이를 확인해 준다.

➡ 읽기 정답은 교재 182쪽 참고

쓰기

친구를 소개하는 글을 써 보도록 한다.

1. 말하기 활동을 통해 친한 친구에 대해 이야기한 상황을 다시 한 번 떠올리게 한다. 다음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다.



교사: 여러분의 친한 친구는 어떤 사람이에요? 무슨 일을 해요?

학생: 제 친구는 대학생이에요. 영어를 전공하고 있어요.

2. 3번 지시문을 함께 읽고 자신의 친구를 소개할 때 어떤 것을 알려 주면 좋을지 옆 친구와 이야기하며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게 한다.
 - 각자 생각하고 있는 의견, 내용들이 정확하게 표현되도록 지도한다.
3. 글에 꼭 넣고 싶은 내용을 간단하게 메모하게 한다.
 - 원하는 내용을 간단한 문장이나 어휘로 적게 한다.
 - 어떤 이야기로 글을 시작하고 끝맺을 것인지 적게 한다.
 - 원하는 글을 쓰기 위해 필요한 어휘와 표현, 문법을 정리하게 한다.
4.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편의 글을 완성하게 한다.
5. 쓴 내용을 친구들과 바꾸어 읽거나 발표하게 한다.
 - 반 친구들의 글을 읽거나 발표를 들은 후 반 친구들의 발표 내용을 정리하게 한다.
 - 학생들에게 친구가 소개하는 사람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묻고 답하게 한다.

단원 마무리

- 개요: 지금까지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 활동을 했음을 상기시키고 학습 성취도를 확인한다.

1. 교사의 질문을 통해 단원의 학습 성취 정도, 어휘와 문법의 사용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확인한다.
2. ‘새 어휘와 표현’은 본 단원의 목표 어휘는 아니나 본 단원에서 처음 나온 것이다. 이 어휘와 표현들을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활동을 한다.
3. 교재에 제시된 ‘자기 평가’를 이용하여 학생 스스로 학습 내용을 확인하고 성취도를 점검하게 한다. 교사는 학생들을 격려해 준다.

1. <보기>와 같이 맞는 것에 표하세요.

<보기> 유키 씨는 학생(이, 가) 아니에요.

- 1) 토야 씨는 기자(이, 가) 아니에요.
- 2) 탁완 씨는 경찰(이, 가) 아니에요.
- 3) 치엔 씨는 통역사(이, 가) 아니에요.
- 4) 로라 씨는 은행원(이, 가) 아니에요.
- 5) 마이클 씨는 운동선수(이, 가) 아니에요.

2. 다음 사람들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보기>의 단어를 활용해 친구에게 물으세요.

가수 번역가 약사 관광 안내원 영화배우 간호사

A	
수진	
민기	약사
정수	
투이	번역가
로렌	가수
로버트	

B	
수진	간호사
민기	
정수	영화배우
투이	
로렌	
로버트	관광 안내원

<보기> 가: 수진 씨는 가수예요?
 나: 수진 씨는 가수가 아니에요. 간호사예요.



- 제 친구 아피아 씨이다
- 인사하다



- “안녕하세요?”
- 저, 김민수이다

- “안녕하세요?”
- 만나서 반갑다

- 아피아 씨, 학생이다?

- 저, 학생, 아니다
- 요리사이다
- 민수 씨, 회사에 다니다?

- 네
- 저, 회사에 다니다

1. <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세요.

<보기> 요코: 은행/일하다/사람 → 요코 씨는 은행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 1) 카오: 그림/그리다/화가 → _____.
- 2) 쏘카: 음식/만들다/요리사 → _____.
- 3) 흐영: 영어/공부하다/대학생 → _____.
- 4) 유리: 한국어/가르치다/선생님 → _____.
- 5) 마이클: 사진/전공하다/대학원생 → _____.

2. 다음 표를 보고 <보기>와 같이 이야기하세요.

	요즘 자주 하는 것	투이	쏘카
<보기>	책	소설	만화책
1)	외국어	중국어	영어
2)	음식	초콜릿	피자
3)	운동	수영	줄넘기
4)	음료수	커피	녹차
5)			

<보기> 가: 투이 씨는 요즘 자주 읽는 책이 있어요?
 나: 네. 제가 요즘 자주 읽는 책은 소설이에요.



• 카오 씨, 소개하다

- 안녕하세요?
- 저, 카오이다
- 경영학을 공부하다, 대학생이다
- 대학교를 졸업하다, 한국 회사에서 일하고 싶다
- 10년 후, 한국하고 무역을 하다, 회사를 세우고 싶다
- 지금 세종학당, 한국어, 공부하다
- 여러분하고 같이 한국어로 이야기하고 싶다
- 만나서 반갑다

활동 5

이름: _____

-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며 간단히 메모해 보세요. 메모한 내용을 보고 친한 친구의 직업과 하는 일을 소개하세요.

이름	직업	하는 일
희영	관광 안내원	유명한 관광지를 소개하다

<보기> 가: 제 친구 희영의 직업은 관광 안내원이에요. 유명한 관광지를 소개해요.

3) 「세종한국어 3」 문화 단원

문화4 한국의 날씨와 음식

학습 목표

한국의 날씨와 음식에 대해 이해하고 이야기할 수 있다.

단원 내용

- 한국의 봄 날씨와 음식에 대해 소개하기
- 한국의 여름, 겨울 날씨와 음식에 대해 이해하고 자국의 날씨와 음식과 비교하기
- 한국의 가을 날씨와 음식에 대해 알아보기
- 한국과 자국의 대표적인 계절 날씨에 대해 이해하고 글 쓰기

※ 관련 영상: 《세종한국문화 1》의 10단원(한국에는 사계절이 있어요.)

수업 개요

구분	내용	교육 활동	준비물	소요 시간
문화 학습 준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재의 사진과 제시된 질문을 이용해 질문하기 • 단원의 주제 및 학습 목표 제시하기 		5분
	어휘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가 미리 제시한 예습용 어휘와 표현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서 토의하기 		20분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의한 어휘의 내용에 대해 발표하기 • 새 어휘와 표현을 학습하고 확인하기 		25분
문화 학습 활동	문화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가 한국의 날씨와 음식에 대해 설명하기 	• 동영상	30분
	비교 문화 토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과 자국의 문화에 대해 다른 점과 같은 점을 찾아서 이야기해 보기 	• 활동	20분
문화 학습 마무리	구상 개요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감 선정하기 • 글의 구조 조직하기 • 필요한 내용을 정리하기 		15분
	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상 개요를 바탕으로 글을 완성하기 		30분
	마무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의 설명에 대한 질문에 답하기 • 학습한 내용 정리하기 		5분

문화 학습 준비

도입

● **개요:** 학생들이 한국의 '날씨와 음식'이라는 주제에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한다. 또 이와 관련된 질문을 해 주제를 예측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1. 한국의 날씨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있는지 질문한다.



교사: 한국의 봄, 여름, 가을, 겨울 날씨는 어때요?

학생: 봄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더워요, 가을에는 쌀쌀하고, 겨울에는 추워요.

2. 계절에 따라 먹는 음식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한다.



교사: 한국의 사계절 중 여름에는 어떤 음식들을 먹을까요?

학생: 여름에는 냉면을 먹어요. 팔빙수도 먹어요.

3. 교재 144쪽에 나와 있는 사진을 사용하여 어느 계절에 먹는 음식인 것 같은지 질문한다.



교사: (삼계탕 사진을 가리키며) 이 음식의 이름은 뭐예요? 어느 계절에 먹을 것 같아요?

어휘 활동

● **개요:** 교사는 학생들이 집에서 미리 학습해 온 어휘에 대해 잘 알고 있는지 친구들과과의 토의를 통해 어휘를 학습할 수 있게 한다.

1. 11과를 마칠 때 학생들에게 문화에서 새로 배운 어휘와 표현에 대해 찾아오게 하고 찾아온 것에 대해 그 의미를 추측, 이야기해 보게 한다.

- 11과를 마칠 때, 다음의 어휘와 표현을 연습해 오도록 숙제를 부여한다. 연습할 어휘와 표현은 다음과 같다. (팔죽, 군고구마, 군밤, 동짓날, 정월 대보름, 땅콩, 호두, 밤나물, 화전, 삼계탕, 콩국수, 냉면, 햅쌀, 꽃감)
- 11과에서 배운 어휘와 표현들도 함께 활용하여 문화에서 나오는 새 어휘를 추측해 보게 한다.



교사: 11과에서 한국의 여름 날씨에 대해 배웠지요? 한국의 여름은 무더워요. 무더운 여름에는 어떤 음식을 먹을까요? '팔죽, 군고구마, 군밤, 밤나물, 화전, 삼계탕, 냉면, 콩국수, 햅쌀, 떡, 꽃감'은 어떤 것일까요? 어느 계절에 먹을까요? 옆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세요.


2. 2-3명씩 학생들을 짝 지어 주고 자신이 조사해 온 것을 보며 자유롭게 이야기하게 한다.

발표

● **개요:** 학생들에게 토의한 어휘의 내용을 발표시키고 확인한다.

1. 그룹을 지어 토의한 내용을 정리하여 각 그룹의 대표가 발표하게 한다.

2. 학생들이 다 발표한 후에 발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주고 관련 내용을 다음 시간에 자세히 배울 것임을 알려 준다.

 문화 설명

● **개요:** 한국의 날씨와 대표적인 음식에 대해 교사가 준비한 내용을 설명하며 학생들을 이해시킨다.

1. 한국 사람들이 겨울에는 어떤 음식을 먹을지 생각해 보게 하고 왜 그 음식을 먹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게 한다.

- 교재 145쪽에 나와 있는 사진을 사용하여 도입을 한다.



교사: (145쪽의 팔죽 그림을 가리키며) 이 음식의 이름이 뭐예요?

학생: 잘 모르겠어요.

교사: 팔죽이에요. 여러분, 죽 알아요?

학생: 네, 먹어 봤어요.

교사: 그래요? 죽 중에서 팔로 만든 죽을 팔죽이라고 해요.

- 먼저 동짓날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고 동짓날에 팔죽을 먹으면 새해에 나쁜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 준다.
- 정월 대보름에 대해 간단히 설명한 다음 이 날 먹는 견과류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알려 준다.
- 이러한 특별한 날 먹는 음식 이외에도 군고구마, 군밤, 봉어빵 등 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에 대해서도 소개한다.

2. 봄에는 어떤 음식이 있을지 생각해 보게 하고 왜 그 음식을 많이 먹는지 알려 준다.

- 교재 146쪽에 나와 있는 사진을 사용하여 도입을 한다.



교사: (146쪽의 화전 그림을 가리키며) 이 음식 위에는 뭐가 있어요?

학생: 꽃이 있어요.

교사: 네. 진달래꽃이에요. 왜 이 꽃이 음식 위에 있을까요?

학생: 음식에 꽃이 있으면 예뻐요.

교사: 맞아요. 모양이 예쁘면 음식이 더 맛있어요. 그래서 음식 위에 꽃을 놓았어요. 이 음식 이름은 화전이에요.

- 봄에는 날씨가 따뜻해져서 꽃과 나무들이 잘 자란다는 것을 알려 주면서 그래서 봄에 봄나물을 많이 먹는다는 것을 이야기해 준다.

3. 한국 사람들이 여름에는 어떤 음식을 먹을지 생각해 보게 하고 그 음식을 먹으면 어떤 점이 좋을지를 알 수 있게 한다.

- 교재 146쪽에 나와 있는 사진을 사용하여 도입을 한다. 차가운 음식과 뜨거운 음식을 나누어서 설명한다.



교사: (146쪽의 삼계탕 그림을 가리키며) 이 음식 이름이 뭐예요?

학생: 삼계탕요.

교사: 이 음식은 차가울 것 같아요? 아니면 뜨거운 것 같아요?

학생: 뜨거워요.

교사: 여름에는 날씨가 더워요. 그런데 왜 뜨거운 음식을 먹을까요?

학생: 건강에 좋아요?

교사: 더운 날씨에 뜨거운 것을 먹으면 덥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뜨거운 것을 먹어요.

- 여름에 뜨거운 것만 먹는 것이 아니고 주로 차갑거나 시원한 음식들을 먹는다는 것을 알려 준다. 시원한 음식으로 냉면, 콩국수, 팔빙수 등이 있다는 것을 알려 준다. 팔빙수에는 겨울 음식에서 이야기한 팔죽의 팔이 들어간다는 것을 이야기하며 이해를 높일 수 있다.

4. 가을에는 어떤 음식이 있을지 생각해 보게 하고 왜 그 음식을 먹는지를 생각하게 한다.

- 교재 147쪽에 나와 있는 사진을 사용하여 도입을 한다.



교사: (147쪽의 꽃감 그림을 가리키며) 이것은 뭐예요?

학생: 모르겠어요.

교사: 감이라는 과일이에요. 가을에는 과일을 많이 먹을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학생: 날씨가 따뜻해서요?

교사: 네. 가을에는 날씨가 너무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아요. 그래서 과일들이 맛있어요. 맛있는 감을 추운 겨울에도 먹으려고 밖에 걸어 두는데 이것을 꽃감이라고 해요.

- 가을에는 한국의 대표적인 명절인 '추석'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새 쌀인 '햅쌀'로 만든 떡을 많이 먹었다는 이야기를 해 준다. 떡의 종류를 설명하며 추석에 먹는 송편과 이사할 때 나누어 먹는 시루떡을 이야기할 수 있다. 시루떡은 겨울의 팔죽, 여름의 팔빙수에 들어간 팥을 얹은 떡이라는 것도 이야기해 주면 좋다.



비교 문화 토의

◎ **개요:** 한국과 자신의 나라의 대표적인 계절 음식을 비교해 보면서 서로 간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도록 한다.

1. 2명 또는 3-4명이 함께 한국의 날씨와 계절 음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게 한다.

- 자기 나라에 그러한 날이 있는지 있다면 무엇이 같고 다른지 지침서 262쪽의 활동 표를 활용하여 이야기하게 한다.



교사: 한국과 여러분 나라는 계절마다 날씨가 달라요. 그리고 계절마다 먹는 음식도 달라요. 두 나라에서는 어떤 음식을 먹어요? 계절마다 먹는 음식을 서로 비교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 자기 나라에 계절 음식이 특별히 없는 경우, 그 나라의 대표 음식을 소개하도록 해도 좋다. 이때는 지침서 262쪽의 활동 표의 계절 부분을 삭제 또는 수정해 수업에 적절하게 활용한다.

2. 2명 또는 3-4명이 함께 한국과 자기 나라의 대표적인 계절 음식과 그 계절에 먹는 이유에 대하여 비교해서 이야기하게 한 다음, 어떤 음식들이 서로의 나라에서 인기가 있을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야기해 보게 할 수 있다.

3. 학생들이 토의를 끝낸 후에 토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주고 관련 내용으로 다음 시간에 글 쓰기를 할 것임을 알려 준다.

문화 학습 마무리



구상 개요 작성

● **개요:** 한국과 자기 나라의 대표적인 계절 음식을 비교하는 글을 쓰기 위해 구상 개요를 작성해 보게 한다.

1. 학생들에게 한국과 자기 나라의 대표적인 계절 음식이 어떤 점이 다르고 어떤 점이 같은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게 한다.
 - 한국과 자기 나라의 계절 음식에 대해 잘 알고 있는지 확인한다.
2. 글에 넣고 싶은 내용을 간단하게 메모하고 이를 바탕으로 글의 구조를 만들어 보게 한다.
 - 여러 계절 음식 중에 어떤 것을 비교할 것인지 원하는 내용을 간단한 문장이나 어휘로 적게 한다.
 - 어떤 이야기로 글을 시작하고 끝맺을 것인지 글의 구조를 만들어 보게 한다.
 - 글의 구조에 맞는 필요한 내용을 정리해 보게 한다.
 - 만약 한국에는 있지만 자기 나라에는 없는 음식이나, 자기 나라에는 있지만 한국에는 없는 음식을 글로 쓴다면 음식 재료, 종류, 맛 등을 어떻게 소개하면 좋을지, 계절에 따른 날씨와 관련해서 왜 그 음식을 먹는지에 대해서도 쓰게 한다.



쓰기

● **개요:** 한국과 자기 나라의 대표적인 계절 음식을 비교하는 글을 쓰게 한다.

1. 구상 개요를 바탕으로 한국과 자국의 대표적인 계절 음식을 비교하는 글을 완성하게 한다.



교사: 한국과 여러분 나라의 계절 음식에 대해서 비교해서 메모했지요? 메모한 것을 보면서 글을 써 봅시다.

2. 쓴 글을 친구들과 바꾸어 읽거나 발표하게 한다.
 - 반 친구들의 글을 읽거나 발표하게 한다.
 - 학생들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글을 쓴 사람은 누구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답하게 한다.
3. 교사가 학생들의 발표를 듣고 칭찬을 하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 준다.



마무리

● **개요:** 학생들이 한국의 계절별 날씨 특징과 음식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잘 이야기할 수 있는지 확인하며 마무리한다.

1. 한국의 날씨와 계절 음식에 대해 질문을 하여 이해했는지 확인한다.



교사: 겨울에 동지가 있어요. 이날에는 어떤 음식을 먹어요?

학생: 팔죽을 먹어요.

교사: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학생: 팔죽을 먹으면 새해에 나쁜 일이 생기지 않아요.

2. 학생들에게 모르는 것에 대해 질문을 받고 수업을 마무리한다.

- 여러분 나라에는 어떤 계절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계절에는 어떤 계절 음식을 먹습니까? 한국과 비교하여 이야기해 보십시오.

한국			_____		
계절	계절 음식	먹는 이유	계절	계절 음식	먹는 이유
봄					
여름					
가을					
겨울					

<보기> 가: 한국에는 어떤 계절이 있어요?
 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요.
 가: 한국에서는 가을에 어떤 음식을 먹어요?
 나: 가을에는 추석이 있어요. 그때 송편을 많이 먹어요. 우리 나라에서는요?

4) 「세종한국어 3」 종합 연습 문제 4

종합 연습 문제 4

(12단원 ~ 14단원)

이름 : _____

점수 : _____

※【1-4】 다음 _____ 에 맞는 것을 고르세요.

1. 가: 주말에 손님이 와서 민수 씨 생일 파티에 못 가요.

이 선물을 민수 씨한테 좀 _____ 주세요.

나: 네, 그럴게요.

- ① 옮겨 ② 전해 ③ 받아 ④ 반납해

2. 가: 이번 시험 꼭 잘 보세요. 응원할게요.

나: 고마워요. _____.

- ① 배울게요 ② 축하할게요 ③ 포기할게요 ④ 노력할게요

3. 가: 민수 씨는 무슨 일을 하고 싶어요?

나: 저는 사진 찍는 일에 _____ 사진 찍는 일을 하면 좋겠어요.

- ① 재능이 적어서 ② 소질이 없어서 ③ 관심이 많아서 ④ 보람을 못 느껴서

4. 가: 왜 이사를 하려고 해요? 지금 사는 집이 마음에 안 들어요?

나: 네. _____ 불편해요. 그래서 교통이 편리한 곳을 찾아볼 거예요.

- ① 집이 커서 ② 시설이 좋아서
③ 동네가 시끄러워서 ④ 버스 정류장에서 멀어서

※【5-8】 다음 _____ 에 맞는 것을 고르세요.

5. 가: 날씨가 _____ 같이 산책할까요?

나: 네, 좋아요. 회사 앞에 있는 공원에 갈까요?

- ① 좋고 ② 좋지만 ③ 좋은데 ④ 좋아서

6. 가: 수진 씨는 꿈이 뭐예요?

나: 저는 가르치는 일이 적성에 _____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 ① 맞지만 ② 맞으려고
③ 맞은 후에 ④ 맞기 때문에

7. 가: 민수 씨 부탁 하나만 _____ ?

나: 네, 좋아요. 뭐예요?

- ① 들어 줄래요 ② 들어도 돼요
③ 들어야 돼요 ④ 듣기로 했어요

8. 가: 다음 주에 발표하지요? 준비 많이 해서 잘 하세요.

나: 네, 열심히 _____.

- ① 준비하네요 ② 준비하지요
③ 준비해져요 ④ 준비하겠습니다

※【9-11】 []를 이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9. 가: 친구를 만나면 보통 뭐 해요?

나: _____ . [-거나]

10. 가: 왜 한국어를 공부해요?

나: _____ . [-기 때문에]

11. 가: _____ 가르쳐 줄 수 있어요? [-는데/(으)는데]

나: 네, 알겠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12-13】 다음을 잘 읽고 질문에 답하세요.

같이 살 친구를 찾습니다.

학교 앞 지하철역에서 아주 가까운 집입니다. 방이 두 개이고 거실, 부엌, 화장실이 있습니다. 방이 넓고 창문이 커서 바람도 잘 통합니다. 지은 지 조금 오래되었지만 아직 깨끗합니다. 지하철역 근처라서 주변에 편의 시설도 많습니다. 방값도 비싸지 않습니다. 관심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해 주세요.

☎ 013-3245-9086

12. 이 사람은 왜 이 글을 썼습니까?

- ① 집에 관심이 있어서
- ② 살고 있는 집을 팔려고
- ③ 집에 대해서 알려 주려고
- ④ 같이 살 사람을 찾으려고

13. 위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세요.

- ① 이 집은 교통이 불편합니다.
- ② 이 집은 방이 넓고 창문이 큼니다.
- ③ 이 집은 지은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 ④ 이 집은 방값이 비싸지만 시설이 좋습니다.

※【14-15】 다음을 잘 읽고 질문에 답하세요.

저는 다른 나라 말에 관심이 많고 외국어 배우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통역사가 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나라 말을 배워 봤는데 특히 한국어가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세종학당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집에서는 한국 드라마를 보고 거기에서 나온 말을 따라 하려고 노력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꼭 통역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꿈을 이루는 그 날까지 매일 매일 최선을 다해 ㉠(노력하다).

14. '㉠(노력하다)'를 알맞게 바꾸어 쓰세요.

15. 위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세요.

- ① 이 사람은 통역사입니다.
- ② 이 사람은 한국 사람입니다.
- ③ 이 사람은 외국어 공부를 좋아합니다.
- ④ 이 사람의 취미는 드라마 보는 것입니다.

연구 책임자: 이해영(이화여자대학교 한국학과)
 공동 연구원: 김현진(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
 박기영(서울시립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이준호(경인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장미라(경희사이버대학교 한국어문화학과)
 조남민(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양학부)
 이승연(세종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나리(서울시립대학교 국제교육원)
 이현의(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연구 보조원: 홍승아(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
 김민선(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
 이지혜(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
 조은주(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전우주(이화여자대학교 한국학과)

담당 연구원: 박지순(국립국어원 학예연구사)
 허 은(국립국어원 연구원)

세종한국어 1-4 교원용 지침서 개발 연구

발행인 민현식
발행처 국립국어원
 서울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방화 3동 827)
 전화: 02-2669-9745 전송: 02-2669-9747
인쇄일 2013년 12월 11일
발행일 2013년 12월 11일
인쇄 독수리사

